소송,파산관재,채권회수,기업법무,투자컨설팅
YSM & PARTNERS 법률사무소
yisngmin@gmail.com
(021)525-5959, 0816-1911-245

한국·인도네시아의 길잡이
HANIN POST
한인포스트
www.haninpost.com

우리컨설팅
비자 법인 인허가 수출입 부동산 채용
+62 8111-543-456 hzkim2003 | wooricon2
+62-21-7918-4239 master@woori-consulting.com

2005년 10월 5일 창간 주간 제1037호 광고/구독 문의: 카톡 haninpost 유료 : 35만 루피아/월 4회 e-Paper 2026년 9월 25일

강한 엘니뇨 여파… 인도네시아 2026/2027년 우기 시작 평년보다 늦어진다

- 기상기후지질청(BMKG), 11월부터 본격화 전망… 국토 51.9%는 우기 기간 단축
- 시작은 늦으나 총강수량은 평년 수준 전망… 농업 · 수자원 관리 선제 대응 촉구
- 12월부터 내년 2월 사이 절정… 가뭄 해소와 풍수해 대비 '양면 전략' 시급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전역의 2026/2027년도 우기 진입 시점이 평년보다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관측됐다. 최근 태평양 일대에서 발달한 매우 강한 강도의 엘니뇨(El Niño) 현상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농업과 수자원 관리를 비롯한 국가 주요 산업 전반에 기상 변동에 따른 선제적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22일(현지 시간)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2026/2027년 계절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BMKG에 따르면, 강력한 엘니뇨의 여파로 대기 순환이 지연되면서 인도네시아 대부분 지역의 우기 진입이 평년 대비 늦춰지는 단계적 양상을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테우쿠 파이살 파타니(Teuku Faisal Fathani) BMKG 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26/2027년 우기 시작은 전국에 걸쳐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전체 699개 계절 구역 중 인도네시아 육지 면적의 24.66%에 해당하는 185개 계절 구역(ZOM)을 중심으로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인 우기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BMKG는 11월을 기점으로 강우 전선이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확대되는 중요한 전환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12월에는 전체 국토 면적의 17.31%에 달하는 지역으로 강우권이 확장될 예정이다. 그러나 기상청은 우기 초기 단계에 내리는 국지성 강우가 해당 지역의 항구적인 우기 진입을 확정하는 지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계절풍의 정착 이전 나타나는 일시적 호우에 혼선이 없도록 농가와 유관 부처의 세밀한 기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기 시작 시점은 늦어지고 전체적인 우기 지속 기간도 짧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육지 면적의 과반을 넘는 482개 계절 구역(51.90%)에서 평년보다 짧은 우기가 나타날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우기 기간의 단축에도 불구하고 누적 강수량은 평년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BMKG는 전체 육지 면적의 69.76%를 차지하는 510개 계절 구역의 누적 강수량이 평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짧아진 기간 동안 비가 집중적으로 내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기의 절정기는 지역별로 분산되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다. BMKG는 2026년 12월 155개 계절 구역(육지 면적의 36.94%)을 시작으로, 2027년 1월에는 162개 구역(25.68%), 이어 2027년 2월에는 190개 구역(16.79%)에서 순차적으로 최고 강수량을 기록하는 절정기가 도래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기후 변동에 따라 지방정부와 농업, 에너지, 수자원 등 날씨 의존도가 높은 전략 부문의 기민한 대응이 시급해졌다. 특히 파종 시기 조정과 저수 인프라의 탄력적 운용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테우쿠 파이살 파타니 청장은 "우기가 늦게 시작되는 만큼 각 지방정부와 산업 부문은 이번 우기 도래를 기회로 삼아 저수지와 댐의 용수를 조기에 확보하고, 최적화된 농경지 파종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기가 본격화되면 짧은 기간 동안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홍수, 산사태 등 습성 기상재해(Hydro-meteorological disasters)의 발생 위험 역시 급격히 증가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금번에 발표된 기후 예측 정보가 단순한 기상 데이터를 넘어 각 기관과 대중의 구체적인 적응 전략과 사전 대비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며 "잠재적 기상 위험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변동하는 기후 환경 속에서 생산성과 자원 확보의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청정원
DAESANG

사장님의 고민은 줄이고, 요리의 품격은 올립니다!

NEW ITEM





압도적인 가성비

~~Rp.599.000~~

Rp.480.000

HARGA EKONOMIS

"프리미엄의 완성"
좋은 고추장은 손님들이 먼저 알아 봅니다

KUALITAS PREMIUM, CITARASA LEZAT!

HALAL INDONESIA
ID00410020848741024



안전관리인증 HACCP
소비자중심
WORLD CLASS PRODUCT OF KOREA 세계일류상품

SCAN FOR MORE INFO

추가 정보 및 주문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부탁드립니다
INFORMASI LEBIH LANJUT & PEMESANAN:
0821-3000-6262

프라보워 대통령, 집권 2년 성과 강조… "말만 앞서는 지도자 아님을 입증"

- 식량 자급자족 달성 및 디젤 수입 중단 등 '자립 경제' 가시적 성과 역설
- "국민 기본권 해결에 타협 없어… 내년부터 어선 수천 척 건조 지원 착수"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취임 2주년을 앞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주요 국정 과제들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하며, 자신의 리더십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았음을 강력히 천명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동부 자바주 포노로고에서 개최된 이슬람 명문 교육기관 '폰독 모던 다루살람 곤토르(PMDG)' 창립 100주년 기념 감사 리셉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집권 2년 차를 맞이한 소회를 밝히며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구체적인 정책 성과를 공유했다.

이날 연설에서 프라보워 대통령은 국정 전반에 대한 깊은 자신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그는 "취임 후 2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통치에 대한 확신이 한층 더 확고해졌다"며 "현 정부가 거둔 다양한 성과는 우리가 오직 국민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헌신해 왔음을 방증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는 이제 '말만 앞서는 지도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증명해 냈기에 국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국정 성과의 배경으로 내각과 군, 지방정부 간의 유기적인 공조를 꼽았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번 결실은 정부의 핵심 정책들을 현장에서 묵묵히 실천해 준 각 부처 장관들과 군 장성, 주지사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원팀으로 협력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공직 사회 전반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프라보워 대통령은 최근 참모진이 보고한 '집권 2개년 주요 성과 요약 보고서'를 언급하며 국정 실행력의 중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그는 "보고서를 받고 우리 정부가 단기간 내에 이토록 많은 사업을 완수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랐다"면서 "지금껏 성과의 개수를 따지기보다 정책의 현장 실행 그 자체에 몰두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신속하게 일하고, 일하고, 또 일하는 것에만 집중해 왔기에 국민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발자취를 남겼는지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프라보워 대통령이 국정의 핵심 지표로 내세운 분야는 '민생 복지'와 '식량·에너지 자립'이다. 그는 "비료를 제때 공급받아야 하는 농민과 끼니를 걱정하는 빈곤층 국민은 정부를 마냥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행정의 신속성을 거듭 주문했다.

이어 식량 안보와 관련해 "신께 감사하게도(알함둘릴라), 인도네시아는 이미 식량 자급자족을 달성했으며 국가 식량 비축량 역시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엘니뇨와 극심한 가뭄 등 기상 이변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이 완료됐음을 명시하며, 국민의 먹거리 안전망을 지키기 위한 외부 의존 탈피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에너지 부문에서의 구조 개혁 성과도 제시됐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7월 1일을 기점으로 해외로부터의 경유(디젤)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며 "현재 인도네시아는 독자적인 디젤 공급망을 통해 완전한 에너지 자립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동부 자바주 포노로고에서 열린 폰독 모던 다루살람 곤토르 100주년 감사 기념 연회에서 연설했다. (19/9/2026). (Foto: Dok. BPMI Setpres)

취약 계층으로 분류되던 수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대책도 공식화했다. 그는 "이제 정부의 시선은 소외되었던 어민들을 향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행동에 착수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어민들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해 정부 주도로 수천 척 규모의 어선 건조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연설 말미에서 프라보워 대통령은 주권 국가로서의 존엄성과 국가적 자립의 당위성을 힘주어 강조했다. 그는 "식량과 에너지 부문의 완전한 자립은 타국에 휘둘리지 않는 주권 국가로 서기 위한 절대적 조건"이라며 "인도네시아는 결코 다른 민족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며, 스스로의 발로 우뚝 서서 위대한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마지막으로 프라보워 대통령은 국가적 비전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국민적 연대를 당부했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나아갈 미래는 대단히 밝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조국의 밝은 미래를 믿고 국가 발전을 향한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달라"고 당부하며 연설을 매듭지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인도네시아, 유엔 총회서 '글로벌 회복력'과 '팔레스타인 평화' 촉구 나선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제81차 유엔(UN) 총회 일반토의 기조연설을 통해 강력한 국가 및 지역 회복력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회복력 구축'과 '팔레스타인 문제의 가시적 해결'을 국제사회에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수기오노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은 현지시간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오는 26일 오후 세션으로 예정된 국가 기조연설(national statement)의 주요 의제를 사전 공개했다.

수기오노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세계 정세가 극도로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현 상황에서, 강력한 국가 및 지역 회복력을 기반으로 공동의 회복력을 구축하는 것은 복합적인 글로벌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는 이번 연설에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비롯해 팔레스타인 문제, 다자주의 체제 강화, 유엔 개혁,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신흥국 및 개도국)의 역할 확대 등에 대한 입장도 함께 표명할 계획이다.

유엔 총회 참석에 앞서 수기오노 장관은 다자 외교 무대에서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며 주요 현안에 대한 사전 조율에 나섰다.

특히 지난 21일 열린 '아랍·이슬람 8개국 그룹 외교장관 회의'(인도네시아, 카타르, 튀르키예, 이집트, 요르단,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UAE)에 참석해 중동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장관은 가자지구의 영구적 휴전과 인도적 지원의 원활한 보장, 조속한 복구 및 재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2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 논의를 위한 '뉴욕 선언 1주년 회의'에서도 "지난해 로드맵을 마련한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과 이행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중견국 외교와 지역 간 협력 확대에도 속도를 냈다. 수기오노 장관은 한국, 멕시코, 튀르키예, 호주가 함께하는 믹타(MIKTA)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복잡해지는 글로벌 역학 관계 속에서 믹타가 상이한 세력 간의 간극을 좁히고 구체적인 협력을 견인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세안-태평양동맹(멕시코·콜롬비아·페루·칠레) 각료회의에 참석해 교육, 관광, 디지털, 스마트시티 등 실질적 혜택을 창출할 수 있는 양 지역 간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프라보워 대통령 UN 연설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수기오노 장관이 남은 총회 일정 동안 평화·안보, 지속가능개발, 환경, 인도주의 활동가 보호, 평화구축(peacebuilding) 등 국제사회의 핵심 의제를 다루는 다자 회의 및 양자 회담에 지속적으로 참석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수아하실 신임 재무장관, 공직자 14명 전격 임명… '인사 논란' 속 조직 추스르기

수아하실 나자라(Suahasil Nazara) 신임 재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재무부 및 금융안정위원회(KSSK) 소속 고위 공직자 14명에 대한 후속 인사를 단행했다. 전임 장관 시절 단행된 대규모 인사를 둘러싸고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조직 안정과 리더십 공백 최소화를 꾀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재무부는 2026년 9월 21일 자카르타 본청에서 임명식을 열고 고위공무원단 나급(2급)과 국세청(DJP), 관세청(DJBC), 조세법원 및 금융안정위원회 사무국 당연직 공직자 등 총 14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2026년 제293호(제271호 개정), 제218호, 제219호 재무부 장관령에 근거해 이뤄졌다.

이번 인사는 전임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Purbaya Yudhi Sadewa) 장관의 '막판 인사' 논란 직후 단행돼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푸르바야 전 장관은 면직(9월 14일) 나흘 전인 지난 9월 10일, 국세청과 관세청 등 핵심 보직을 포함한 대규모 순환 보직을 단행해 안팎의 반발을 샀다.

특히 비모 위자얀토(Bimo Wijayanto) 국세청장이 "사전 역량평가를 거치지 않은 '의문스러운 인사(도깨비 명단)'가 다수 포함됐다"며 임명 유보를 요청하는 등 인사 후폭풍이 거셌다.

이에 대해 수아하실 장관은 내부 검토를 진행하면서도 기임명된 인사들의 법적 효력은 인정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수아하실 장관은 임명식 후 열린 훈시에서 "지난번 임명식 대상자들의 인사는 이미 유효하며, 현재 각자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금일 인사는 기존 전보와 승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완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수아하실 장관은 "이번 임명은 재무부 직위·직급심의위원회(Baperjakat)의 메커니즘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강조하며 능력주의(메리토크라시)와 조직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조직이 당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의 연속성과 기관의 역량 유지가 필수적"이라며 "세입, 감독, 세출, 금융 조달 등 전 부서가 본연의 국가 업무 목표 달성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아하실 나자라 재무부 장관은 재무부 국장급 고위공무원(Pejabat Pimpinan Tinggi Pratama) 14명과 금융시스템안정위원회(KSSK) 사무국 직원을 임명했다. (21/9/2026). (Foto: Istimewa)

한편, 이번에 발표된 신임 공직자 14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테디 수하르타디 페르마디(Teddy Suhartadi Permadi) 조세법원 사무국장 ▲ 비스마르 팔레리(Bismar Fahlerie) 조세법원 차직(부)사무국장 ▲ 아궁 크리스디얀토(Agung Krisdiyanto) 조세서비스 분야 연구관 ▲ 섹티 위디하르탄토(Sekti Widihartanto) 욕야카르타 특별주 국세청 지방청장 ▲ 이하산 프리야위바와(Ihsan Priyawibawa) 동부·북부 칼리만탄 국세청 지방청장 ▲ 아니 나탈리아(Ani Natalia) 파푸아·서파푸아·말루쿠 국세청 지방청장 ▲ 아구스 아미위자야(Agus Amiwijaya) 관세 및 소비세 서비스·세입 분야 연구관 ▲ 에스티 푸르와디아니 히다야티(Estty Purwadiani Hidayatie) 조직 역량 개발 및 성과 분야 연구관 ▲ 아당 누그로호 아디(Adhang Noegroho Adi) 말루쿠 관세청 지방청장 ▲ 갈리 엘함 세티아완(Galih Elham Setiawan) 탄중 프리옥 관세청 A형 주요 서비스 사무소장 ▲ 에비 물랴니(Evy Mulyani) 중부 술라웨시주 국고청 지방청장 ▲ 판차 푸트라 자야(Panca Putra Jaya) 남부·동남·서부 술라웨시 국유재산청 지방청장 ▲ 헤르만 사헤루딘(Herman Saherudin) 금융안정위원회 사무국 당연직 서기 ▲ 아유 수코리니(Ayu Sukorini) 금융안정위원회 금융시장·지급결제시스템 및 기타 금융기관 평가국 당연직 국장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데스트리 다마얀티 신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 공식 취임… "정책 공조와 독립성 유지 조화 이룰 것"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데스트리 다마얀티(Destry Damayanti) 총재 취임 2026.9.1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ank Indonesia, 이하 BI)은 2일 데스트리 다마얀티(Destry Damayanti)가 신임 중앙은행 총재로 공식 취임했다고 발표했다.

데스트리 신임 총재는 지난 1일 자로 공포된 대통령 결정(Keppres No.92/P/2026)에 따라 임명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6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인도네시아의 통화·금융 정책을 이끌게 된다. 취임 당일 아이다 부디만(Aida S. Budiman) 수석부총재와 솔리킨 주흐로(Solikin M. Juhro) 부총재도 함께 취임해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마쳤다.

데스트리 총재는 2019년부터 BI 수석부총재직을 수행해 왔으며, 페리 와르지요(Perry Warjiyo) 전 총재의 사임 이후에는 총재 직무대행을 맡아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온 인물이다. 앞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데스트리를 차기 중앙은행 총재 단독 후보로 지명했다. 이어 지난달 26일 인도네시아 하원(DPR) 제11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뒤, 이달 1일 하원 본회의에서 최종 임명 동의안이 가결되었다.

데스트리 총재는 의회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강화하되, 중앙은행 고유의 독립성과 정책적 신뢰성은 확고히 지켜나가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그는 "정부와 중앙은행 간의 긴밀한 공조가 중앙은행의 권한과 독립성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을 유기적으로 운용하여 물가 및 루피아화 환율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가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외부문의 거시경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데스트리 총재는 외환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보다 정밀하게 세분화하고 디지털 기반의 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수출입 거래 시 발생하는 과소신고 등의 불법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수출 확대를 견인하여 국가 대외 신인도와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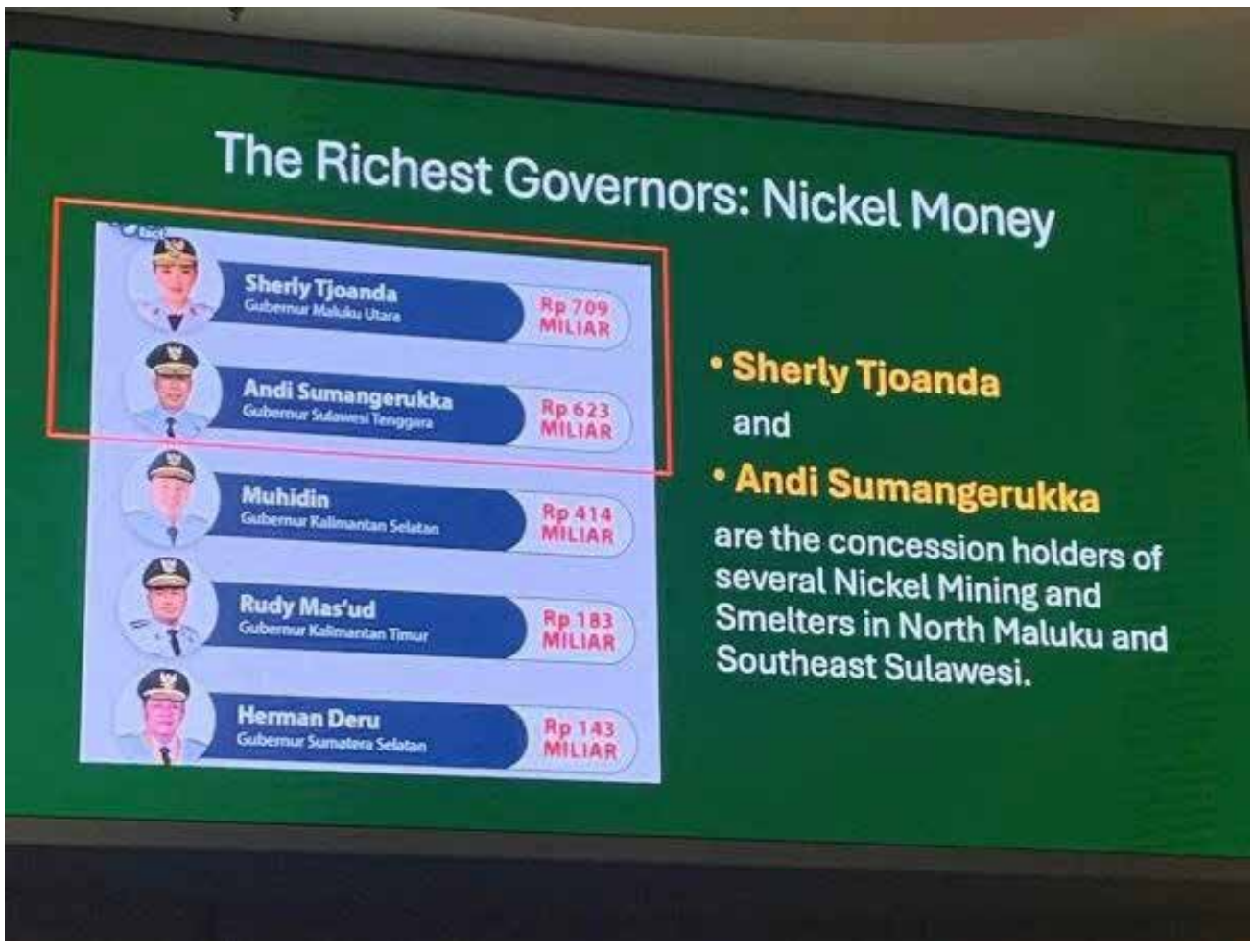

HONGSAM BALL
BEST SERVED CHILLED
ZERO CAFFEINE
WITH
Vitamin C, Vitamin B1,
Vitamin B6, Vitamin B12,
and Taurine
EKSTRAK GINSENG MERAH
Vitamin C ⚡ Vitamin B1 ⚡ Vitamin B6 ⚡ Vitamin B12 ⚡ Mengandung Taurin (83 mg / 250 ml)
HONGSAM BALL
HONGSAMBALL
Minuman Berperisa Berkarbonat Dengan Ginseng
(Hongsamball Original)
Red Ginseng Extract
HALAL INDONESIA
Shin Tae Yong
Hongsam Ball Ambassador
STEP IN.
COME BACK STRONG
: hongsamball.id

인도네시아 주지사 5인, 방콕 유엔 포럼서 거론…
'니켈 자본'과 정경유착 의혹 국제사회 조명

- 2026 UN 책임경영·인권 포럼서 '가장 부유한 주지사들' 슬라이드 공개
- 셜리 초안다·안디 수망에룩카 등 자산 규모 및 채굴권 보유 사실 적시
- 오비 제도 등 환경 파괴 심각성 고발… '규제자이자 사업자' 이중 지위 논란

[방콕] 인도네시아의 핵심 전략 산업인 니켈 채굴을 둘러싼 거버넌스 및 환경 훼손 문제가 국제사회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유엔 주관 국제회의에서 인도네시아 현직 주지사 5인의 막대한 자산과 이들의 니켈 사업 연계성을 지적하는 발표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태국 방콕 유엔회의센터(UNCC)에서 2026년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열린 '2026 유엔 책임경영 및 인권 포럼(UN Responsible Business and Human Rights Forum 2026)'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책임 경영, 환경 보호 및 피해 지역 주민의 인권 보장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전 세계 정부 관료, 산업계 인사, 시민사회단체 및 환경 피해 당사자 등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인도네시아의 천연자원 거버넌스 취약성은 집중 성토의 대상이 되었다.



태국 방콕에서 열린 UN Responsible Business and Human Rights Forum 아시아태평양 포럼에서 술라웨시트라가주(Sultra) 주지사의 재산 6,230억 루피아와 말루쿠우타라주(Malut) 주지사의 재산 7,090억 루피아를 보여준다. (Foto: X/@zalkad)

'가장 부유한 주지사들: 니켈 머니' 명단 공개

이번 포럼에서 큰 파장을 일으킨 대목은 '가장 부유한 주지사들: 니켈 머니(The Richest Governors: Nickel Money)'라는 제목의 발표 슬라이드였다. 해당 자료에는 인도네시아 주요 광업 지역의 행정을 통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 5인의 실명과 추정 자산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지목된 지자체장은 셜리 초안다(Sherly Tjoanda) 북말루쿠주 주지사, 안디 수망에룩카(Andi Sumangerukka) 동남술라웨시주 주지사, 무히딘(Muhidin) 남칼리만탄주 주지사, 루디 마스웃(Rudy Mas'ud) 동칼리만탄주 주지사, 헤르만 데루(Herman Deru) 남수마트라주 주지사 등 5인이다.

공개된 시각 자료에 따르면, 셜리 초안다 북말루쿠주 주지사는 7,090억 루피아로 명단 최상단에 올랐다. 이어 안디 수망에룩카 동남술라웨시주 주지사가 6,230억 루피아, 무히딘 남칼리만탄주 주지사가 4,140억 루피아, 루디 마스웃 동칼리만탄주 주지사가 1,830억 루피아, 헤르만 데루 남수마트라주 주지사가 1,430억 루피아 순으로 집계되었다.

다만, 유포된 자료상에는 셜리 초안다 주지사의 7,090억 루피아를 포함한 각 수치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 및 데이터 출처가 명시되지 않았다. 해당 금액이 공직자 재산등록(LHKPN)에 기반한 순자산인지, 단순 자산 평가액인지, 혹은 사업 지분에 따른 추정치인지에 대해서는 자료 자체만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조광권 보유 지목과 '이중 대리인' 논란

자료의 문제 제기는 단순한 자산 규모 공개에 그치지 않았다. 한 슬라이드는 셜리 초안다 주지사와 안디 수망에룩카 주지사를 가리켜 "북말루쿠 및 동남술라웨시 소재 복수 니켈 광산 및 제련소의 조광권 보유자(concession holders of several nickel mining and smelters in North Maluku and Southeast Sulawesi)"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북말루쿠주와 동남술라웨시주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집중 육성하는 니켈 채굴 및 하류화(Downstream) 제련 설비의 핵심 거점이다.

이번 발표를 진행한 인물은 2015~2019년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KPK) 위원을 역임한 저명 반부패 전문가라 오데 무함마드 샤리프(La Ode Muhammad Syarif) 전 위원으로 확인되었다. 포럼 현장에서 샤리프 전 위원의 발표 모습이 담긴 시각 자료는 엑스(X·옛 트위터)의 '@zalkad' 계정 등을 통해 소셜 미디어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샤리프 전 위원은 '니켈 채굴이 사람과 지구에 피해를 줄 때: 인도네시아에서의 효과적인 구제 확보 과제(When Nickel Mining Harms People and the Planet: Challenges in Securing Effective Remedy in Indonesia)'라는 주제 아래, 자원 부국에서 나타나는 '이중 대리인(double agent)'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공직자이자 규제자가 동시에 광업 현장의 이해관계자이자 '플레이어'로 활동하는 구조적 모순이 환경 및 인권 침해에 대한 효과적 제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황폐화된 오비 제도… 환경 파괴 민낯 드러나

실제 발표장 화면에는 난개발로 훼손된 현지 환경 실태가 생생히 투영되었다. 주요 사례로 다뤄진 곳은 북말루쿠주 남할마헤라군에 속한 오비 제도(Kepulauan Obi)였다. 42개 도서로 이뤄진 총면적 2,542㎢ 규모의 오비 제도는 2022년 중반 기준 52,588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삶의 터전이다.

그러나 발표에 포함된 사진 자료 속 오비 제도의 하천은 광산 개발로 인한 토사 유출로 붉은 갈색으로 심각하게 변색되어 있었다. 캡션에는 오비의 한 섬에 위치한 수자원 생태계가 심각한 수준으로 파괴되었다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아울러 동남술라웨시주 봄바나군 카바에나섬의 광업 현장 사례도 함께 제시되었다. 발표 자료는 산림지역정비 태스크포스(Satgas PKH)를 통한 국가 통제 및 단속 조치와 연관된 'PT 토니아 미트라 세자흐테라(PT Tonia Mitra Sejahtera)'의 172.82헥타르 규모 광산 구역에 관한 언론 보도 내용을 인용하며 행정 규제의 난맥상을 꼬집었다.

국제적 파장 속 반론의 여지… 엄정한 조사 요구 목소리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인도네시아의 '자원 민족주의'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구축 드라이브 이면에 가려진 환경 파괴, 지역 주민과의 갈등, 공공 부문의 이해충돌 문제를 국제 규범의 관점에서 공론화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유엔 포럼 발표 자료에 셜리 초안다, 안디 수망에룩카 등 고위 공직자들의 이름과 자산 수치가 적시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들의 직접적인 광업 범죄 연루나 실정법 위반을 최종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역시 분명히 짚어야 할 대목이다. 합법적인 기업 승계나 지분 보유일 가능성, 그리고 지자체장 취임 전 형성된 자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인권 및 거버넌스 포럼에서 인도네시아 핵심 지자체장들의 실명이 이처럼 구체적인 채굴권 및 자산 명세와 함께 적시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니켈 산업 정책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강화와 피해 주민에 대한 실효적 구제책 마련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PT. FREIGHT CARGO LOGISTICS



▬ 해상운송

- *Neutural Consolidator*
- *Transport Containerized Cargo & Heavy Project Cargo*
- *Custom broker*

▬ 항공운송

- *Worldwide Transportation Service*
- *Project Cargo & Special Cargo (Exhibition, Dangerous Cargo)*
- *Air/ Sea & Sea/ Air Service*

▬ 내륙운송

- *Containerized & Heavy Project Cargo Transportation*

▬ 창고보관 업무

- Wide Warehouse Network

▬ 통관 업무

- Customs Clearance Service
- Processing of Fress Duty List

▬ 컨설팅

- Logistics Consulting Service



PT FREIGHT CARGO LOGISTICS
Gading Bukit Indah Blok A No.5, Kelapa Gading Barat,
Kelapa Gading Jakarta 14240
Telp: +62 21 451 3611, email: import@fcl.co.id / export@fcl.co.id

인도네시아 첫 항공모함 '가리발디' 자카르타 입항… 현대화에 7조 5천억 루피아 투입

- 이탈리아서 무상 기증받아 25일간 6,870해리 항해 끝에 도착
- 'KRI 스리위자야'로 개명 예정… 20년 수명 연장 위해 대규모 개보수 추진
- 노후화에 따른 막대한 유지비·연료비 등 재정 부담은 과제로 남아

이탈리아 해군에서 퇴역한 경항공모함 'ITS 주세페 가리발디(Giuseppe Garibaldi)'가 18일 자카르타 북부 탄중프리옥항 107번 부두에 공식 입항했다. 인도네시아 해군(TNI AL) 사상 첫 항공모함 도입으로, 인도네시아의 해양 방위 역량 강화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해당 함정은 지난 8월 24일 이탈리아를 출항한 뒤 수에즈 운하와 홍해, 인도양 등 주요 전략 항로를 거쳐 약 25일간 6,870해리를 항해했다. 인도네시아 해역 진입 후에는 해군 전함 KRI 브라위자야-320과 KRI 프라부 실리왕기-321의 호위를 받으며 입항했다.

도착 현장에는 샤프리 샴수딘 국방장관을 비롯해 아구스 수비얀토 통합군 총사령관,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가 총출동해 함정을 맞이했다. 샤프리 장관은 함정에 직접 올라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했다. 군 당국은 오는 9월 24일 정식 명명식을 열고 이 함정을 'KRI 스리위자야'로 공식 명명하며 인도네시아 국기를 게양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해군은 이 함정을 전투 작전뿐만 아니라 대규모 재난 대응과 인도주의적 구호 등 '전쟁 이외 군사작전(OMSP)'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탈리아 해군 함정 주세페 가리발디(Giuseppe Garibaldi)함이 2026년 9월 18일 북자카르타 탄중프리옥항 107번 부두에 접안하였다. (Foto: Dok. Kemhan RI)

기증 자산이지만 대규모 개보수 불가피… 7조 5천억 루피아 투입

이번 항공모함 인수는 이탈리아 정부의 무상 기증 방식으로 성사됐다. 인도네시아 하원(DPR)이 승인한 자산 가치는 약 5,402만 유로(약 1조 1천억 루피아)에 달한다.

그러나 1985년에 취역해 선령이 40년을 넘긴 노후 함정인 만큼, 실전 운용을 위한 추가 비용이 만만치 않다. 국방부 정보국장 리코 리카르도 시라이트 준장은 가리발디의 성능 개량(리트로핏) 및 현대화 작업에 약 7조 5천억 루피아(약 6,400억 원)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해당 예산은 열대 기후에 맞춘 냉각 및 공조 시스템 개조, 의료 지원 역량 확충, 레이더 및 통신 체계 현대화 등에 사용된다. 무함마드 알리 해군참모총장은 "국영 조선소 PT PAL과 원제작사인 이탈리아 핀칸티에리(Fincantieri), 방산업체 레오나르도 등이 협력해 개보수를 진행할 것"이라며, "현대화 작업을 거치면 향후 15년에서 20년가량 추가 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간 수천억 루피아 운용비 논란… 재정 부담 해소가 관건

함정 도입에 따른 장기적인 재정 부담은 여전히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의회와 군사 전문가들은 막대한 연간 유지비와 연료 소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하원 제1위원회 소속 TB 하사누딘 의원은 외신을 인용해 이탈리아 해군이 해당 함정 유지에 연간 약 500만 유로(약 1,010억 루피아)를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막대한 연료 소비량도 부담이다. 솔레만 B. 폰토전 정보자산국장(퇴역 해군 소장)의 분석에 따르면, 가리발디는 연간 약 1만 6천 톤(약 1,880만 리터)의 연료를 소모한다. 조달 방식에 따라 연료비만 연간 2,580억~4,700억 루피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기본 유지비와 유류비만 합쳐도 매년 최소 3,590억 루피아에서 최대 5,710억 루피아에 달하는 고정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는 승조원 훈련비와 무장 현대화, 대규모 수리 비용을 제외한 수치다.

이탈리아 해군의 퇴역 함정을 인도네시아의 전략 자산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첫발을 뗐지만, 대규모 리트로핏 예산 확보와 막대한 연간 운용비용을 안정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향후 인도네시아 국방 당국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인니 산림부, 칼리만탄 산불 관련 5개 기업 사업 허가 전격 취소… "무관용 엄정 대응"

인도네시아 정부가 산림 및 토지 화재(Karhutla)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의 일환으로 칼리만탄 지역 내 양허지(조차지)를 보유한 5개 기업의 사업 허가를 전격 취소했다.

라자 줄리 안토니(Raja Juli Antoni)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은 중부 칼리만탄 실무 방문 중 허가 취소 방침을 밝힌 데 이어, 22일(현지시간) 자카르타에서 발표한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약자뿐만 아니라 강자에게도 엄정하게 칼날을 겨누는 차별 없는 법 집행"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사업 허가가 취소된 5개 기업은 서부·남부·중부 칼리만탄 일대에 조차지를 보유한 업체들로,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관할 구역 내 대규모 산불 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업별 조차지 및 화재 발생 피해 면적은 다음과 같다.

▲PT 와나 레스타리 자야(PT Wana Lestari Jaya): 서부 칼리만탄 상가우·세카다우군 소재, 총면적 약 2만 9,140헥타르 중 47.84헥타르 소실 ▲PT 프리마 멀티 부아나(PT Prima Multi Buana): 남부 칼리만탄 반자르군 소재, 총면적 1만 1,882헥타르 중 18.20헥타르 소실 ▲PT 판차란 와나 누사(PT Pancaran Wana Nusa): 중부 칼리만탄 라만다우군 소재, 총면적 3,812헥타르 중 497헥타르 소실 ▲PT 그레이스 푸트리 페르다나(PT Grace Putri Perdana): 중부 칼리만탄 라만다우·수카마라군 및 서부 칼리만탄 케타팡군 소재, 총면적 2만 8,990헥타르 중 374.99헥타르 소실 ▲PT 바부구스 와하나 레스타리(PT Babugus Wahana Lestari): 중부 칼리만탄 카푸아스군 소재, 총면적 1만 8,640헥타르 중 231.10헥타르 소실 산림부에 따르면, 산림이용사업허가(PBPH)를 보유한 조차권자는 관할 구역을 철저히 보호하고 관리할 법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산불 발생을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라자 장관은 "해당 기업들이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고 방치한 점이 명백히 확인됨에 따라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조치가 산림부 관할 하의 다른 모든 기업에도 경각심을 주어 산불을 유발하거나 방치하지 않도록 하는 확실한 경고이자 예방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라자 줄리 안토니(Raja Juli Antoni) 산림부 장관은 서부 칼리만탄, 남부 칼리만탄 및 중부 칼리만탄 지역의 산림·토지 화재(karhutla)와 관련하여 5개 기업의 사업 허가를 취소했다고 재차 발표했다.(인도네시아 산림부)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인도네시아 하원, 토지개혁 법안 공식 가결… 알아두어야 할 15가지 핵심 사항

만성적인 토지 불평등과 분쟁 해결을 목표로 추진되어 온 인도네시아의 토지개혁 법률안이 마침내 의회의 높은 문턱을 넘어서며 정식 법률로 제정됐다.

인도네시아 공화국 하원(DPR RI)은 2026년 9월 22일(화) 자카르타 스나얀 의회 단지에서 열린 '2026-2027 회기 연도 제1차 회기 제6차 하원 본회의'에서 '토지개혁 규제에 관한 법률안(RUU)'을 공식 가결했다. 이번 조치는 하원 입법위원회(Baleg)의 집중적인 심사 결과 보고서 제출에 따른 최종 결정이다.



인도네시아 하원 의장이자 본회의 의장인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가 2026년 9월 22일 화요일 DPR 건물에서 토지개혁법안(RUU Reforma Agraria)을 의결하는 모습 /youtube tv parlemen

여야 이견 없이 만장일치 통과… 의사봉 세 번 울려

이날 본회의는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 하원 부의장의 주재 아래 사안 무스토파 부의장과 쿠춘 아흐마드 샴수리잘 부의장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다스코 부의장은 회의에 참석한 전 교섭단체(Fraksi)를 대상으로 법률안 제정에 대한 가부를 물었다. 그는 "이제 각 교섭단체에 묻겠다. 토지개혁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승인하고 법률로 가결하는 데 동의하십니까?"라고 질의했고, 본회의장을 메운 의원들은 일제히 "동의합니다"라며 화답했다.

이어 다스코 부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법률안 통과를 공식 선포했다. 그는 절차적 정당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동의 여부를 재차 확인했고, 의원들이 다시 한번 동의 의사를 표명하면서 장내에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의결 직후 다스코 부의장은 누스론 와히드 토지공간계획부 장관 겸 국립토지청장에게 발언권을 넘겼으며, 누스론 장관은 대통령을 대리해 정부 측 최종 환영 의견을 피력했다.

60여 년 묵은 토지 정의 실현… "근본적 분쟁 해결의 강력한 법적 무기"

토지개혁 규제 법률안 실무위원회(Panja) 위원장을 맡은 아흐마드 이만 수크리 의원은 이번 입법이 토지의 점유, 소유, 이용, 활용 전반에 걸친 극심한 불평등 구조를 타파하고 고질적인 농지·토지 분쟁을 종식하기 위한 조치라고 역설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에서는 '토지개혁 및 천연자원 관리에 관한 2001년 제IX호 국민협의회 결정(TAP MPR RI)'의 위임 사항과 '토지기본법에 관한 1960년 제5호 법률'의 기본 정신이 수십 년간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하위 규정으로 완성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만 위원장은 "이러한 역사적 공백은 계획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이어졌다"며 "국민을 위한 토지 정의, 법적 확실성,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포괄적인 입법 마련이 절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신규 법률은 국가가 토지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내딛은 중대한 결단이자 분쟁 해결을 위한 실천적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처리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쳤다. 하원 입법위원회는 학계, 법률·토지 실무 전문가, 비정부기구(NGO), 민간 기업, 지방정부, 유관 부처 등 55개 주체를 논의 테이블에 참여시켰다. 정부 역시 심의 과정에서 총 596건의 쟁점목록(DIM)을 제출하며 입법 작업에 협력했다. 제출된 쟁점 중 164건은 원안 유지, 54건 문구 수정, 57건 실질적 내용 수정, 295건 삭제, 3건 내용 추가, 20건 조·항·호 추가, 3건 조문 재배치 등이 이루어졌다.

이 같은 치열한 조율 끝에 최종 법률안은 총 14개 장, 53개 조의 체계로 압축·정리되어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특히 이번 법률은 추진력 확보를 위해 대통령 직속 '토지개혁 집행기구'를 신설하고, 집행의 투명성을 감시하기 위한 '감독위원회(Dewan Pengawas)' 설치를 명문화한 것이 핵심 특징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심층 분석] 새 토지개혁법의 15가지 핵심 사항

이번에 통과된 토지개혁법은 불합리한 토지 독점을 근절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체적 장치를 망라하고 있다. 법률에 명시된 15대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통제권 기반의 토지개혁 추진: 국민의 토지 및 농지 자원에 대한 권리의 충족, 회복, 인정을 공고히 보장하며, 실수요자인 개혁 대상자(수혜자) 중심의 활용을 제도화한다.
2. 토지개혁 로드맵 및 단계별 계획 수립: 명확한 정책 방향과 단계별 이행 일정, 우선순위, 실행 전략, 구체적 성과 지표를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3. 우선 개혁 대상 지역 기준 명문화: 토지 점유·소유 불평등도, 분쟁 심각도, 유휴지 비율, 빈곤율, 부재지주 소유지 현황, 법정 상한선 초과 점유 여부 등을 토대로 대상 지역을 지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확립한다.
4. 객체(토지) 및 주체(수혜자)의 명확화: 분쟁 해결 또는 비분쟁 경로로 확보된 대상 토지(객체)를 명시하고, 지원 우선순위 주체로 영세농민, 소작농, 농업 노동자, 어민, 원주민 공동체, 여성, 빈곤층을 공식 지정한다.
5. 대통령 직속 토지개혁 집행기구 신설: 토지 분쟁 해결, 개혁 계획, 집행, 감독 전권을 행사하며 국가수반인 대통령에게 직보·책임지는 총괄 기구를 창설한다.
6. 감독위원회(Dewan Pengawas) 신설: 집행기구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토지개혁 실행 전 과정의 투명성, 국민 참여성,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독립적 감독 기구를 둔다.
7.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 해결 체계 도입: 협의와 사회적 신뢰 회복, 법적 확실성, 원주민·주민의 권리 원상복구를 우선시하는 신속·공정한 분쟁 조정 프로세스를 가동한다.
8. 토지 권리 회복 및 수혜자 역량 강화: 단순한 소유권 이전을 넘어, 토지 권리의 실질적 회복, 재분배 토지의 법적 효력 부여, 수혜 농민의 경제적 자립과 영농 역량 강화를 함께 지원한다.
9. 권리 옹호자 보호 및 사전인지동의(FPIC) 적용: 수혜 당사자, 주민 조력자, 신고자, 증인, 권리 옹호자에 대한 보복을 방지하는 법적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개발 및 수용 시 '자유의사에 의한 사전인지동의(FPIC)' 원칙을 적용해 신규 분쟁을 원천 차단한다.
10. 토지 독점 및 재집중 방지: 부유층이나 대기업에 토지가 다시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점유·소유 한도를 제한하고 지속적인 통제와 정리 작업을 의무화한다.
11. 실질적 주민 참여 보장: 분쟁 심사부터 권리 회복, 재분배 평가에 이르기까지 지역 주민과 이해당사자의 실질적 참여권을 법적으로 명시한다.
12. 단일 데이터(One Data) 시스템 구축: 전국의 분쟁 해결 내역과 토지개혁 이행 현황을 하나의 통합 데이터망으로 묶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13. 안정적인 다각적 재정 조달 체계: 국가예산(APBN)과 지방예산(APBD)은 물론 합법적인 비구속적 대안 재원을 적극 유치해 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14. 강력한 형벌 및 경과 조치 명문화: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며, 과거 추진되던 기존 토지개혁 사업들을 신규 법 체계 내로 질서 있게 흡수·통합한다.
15. 대통령 및 하원 정기 보고 의무화: 토지개혁 추진 현황과 세부 성과를 최소 연 1회 이상 대통령과 하원(DPR RI)에 정식 보고하여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한다.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건국 이래 최대 난제로 꼽혀온 토지 불평등 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틀을 완성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부의 시행령 마련 및 신설 집행기구 출범 등 후속 조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인니 8월 은행 대출 13.65% 성장…
투자 대출 25% 급증하며 견인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인도네시아 은행권의 대출 성장세가 견조한 수요에 힘입어 가속화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에 따르면, 2026년 8월 국내 은행 대출 실행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65% 증가했다. 이는 전월 기록한 13.58%를 소폭 상회하는 수치이자, 중앙은행의 올해 연간 대출 성장률 전망치(8~12%)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번 대출 성장은 특히 설비 및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대출이 주도했다. 용도별 분석에 따르면 투자 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11% 급증해 가장 두드러진 증가율을 나타냈다. 운전자금 대출은 11.45%, 가계소비 대출은 5.07% 각각 증가하며 뒤를 이었다.

자금 조달과 대출 여력 또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은행권 예수금(DPK)은 전년 대비 10.94% 증가하며 유동성을 뒷받침했다. 데스트리 다마얀티(Destry Damayanti) BI 총재는 이날 열린 이사회 회의(RDG) 기자회견에서 "은행의 대출 공급 의향(lending appetite)이 유연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견조한 예수금 증가세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은행의 완화적 거시건전성 정책 역시 대출 확대에 기여했다. 특히 거시건전성 유동성 인센티브 정책(KLM)을 통해 9월 첫째 주 기준 총 461조 2,000억 루피아 규모의 인센티브가 은행권에 공급됐다. 이 중 338조 2,000억 루피아는 KLM 파이낸싱 채널을 통해, 123조 루피아는 단기금융시장 심화(PPU)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됐다. 이는 지난 8월 실적(446조 5,000억 루피아) 대비 확대된 규모로, BI는 9월 1일부터 개별 은행의 건전성을 반영한 선별적 신규 KLM 체계를 가동 중이다.

가파른 대출 증가세 속에서도 은행권의 자산 건전성 지표는 안정세를 보였다. 2026년 7월 기준 은행권 자기자본비율(CAR)은 23.84%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총 부실채권(Gross NPL) 비율은 2.10%, 순 부실채권(Net NPL) 비율은 0.81%로 건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8월 기준 예수금 대비 유동자산 비율(AL/DPK) 역시 23.04%를 기록해 유동성 리스크를 방어하고 있다.

데스트리 총재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확고히 유지하는 동시에, 국가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완화적인 거시건전성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인도네시아, 1998년 외환위기 유산 'BLBI 국채' 28년 만에 전액 상환

- 수아하실 재무장관, 프라보워 대통령에 공식 보고… 218조 3,000억 루피아 완제
- "중앙은행 채무 관계는 종결… 원인 제공 채무자 대상 환수 조치는 불변"


수아하실 나자라 인도네시아 재무장관 Foto: (YouTube/Sekretariat Presiden)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 1997~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금융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조달했던 국가 채무를 약 30년 만에 완전히 청산했다. 당시 단행된 대규모 구제금융 조치인 '인도네시아은행 유동성 지원(BLBI)' 관련 국채 잔액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인도네시아 경제의 오랜 구조적 부담이자 뼈아픈 과거사였던 외환위기 부채의 굴레에서 공식적으로 벗어나게 됐다.

수아하실 나자라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자카르타 메르데카 대통령궁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채무 상환 완료 결과를 공식 보고했다.

수아하실 장관은 보고 직후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달 말, 정부는 중앙은행인 인도네시아은행(BI)에 대한 BLBI 채권 채무 상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해당 부채는 국가가 1997년과 1998년 미증유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 체계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발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 총 640조 루피아 국채 중 BLBI 218조 3,000억 루피아 최종 매듭

재무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1997~1998년 외환위기 당시 파산 위기에 직면한 금융권을 회생시키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총 640조 루피아 규모에 달하는 국채를 다양한 만기와 조건으로 발행했다. 이번에 완제된 부채는 그중 중앙은행이 부실 금융기관들에 긴급 자금을 지원했던 'BLBI' 프로그램과 직접 연결된 국채 채무로, 원금 규모만 218조 3,000억 루피아(약 18조 7,000억 원 상당)에 달한다.

해당 채무는 중앙은행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채무로 계상되어 왔으며, 정부는 매년 국가예산(APBN)을 편성해 정기적으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해 왔다. 수아하실 장관은 "최종 상환은 지난 2026년 8월 24일 성공적으로 집행됐다"고 전하며, 외환위기 발발 이후 약 28년 만에 중앙은행 발행 채권의 장부가 완전히 정리됐음을 명시했다. 이번 최종 상환 재원으로는 인도네시아은행의 잉여금에서 발생한 비과세 국가수입(PNBP) 등이 유기적으로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아하실 장관은 이번 완제에 대해 "그동안 유지해 온 국가예산의 건전한 재정 운용 기조와 더불어 재무부와 중앙은행 간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정책 공조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던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로써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정부 임기 중에 1997~1998년 위기 극복을 위한 국채 발행의 장대한 역사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고 강조했다.

◇ "정부-중앙은행 관계 매듭일 뿐… 부실 유발 차주 추심은 끝까지 지속"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채무 완제가 중앙은행과의 대차대조표상 채무 종결을 의미할 뿐, 과거 금융위기를 유발하고 천문학적인 구제금융 자금을 유용한 차주(오블리고르 및 데비토르)들의 법적 책임 면제를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외환위기 당시 막대한 국고가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수혈받은 상당수 은행 대주주 및 기업 총수들은 자금을 유용하거나 부실을 초래한 뒤 상환을 회피해 인도네시아 사회의 오랜 공분을 사 왔다.

이에 대해 수아하실 장관은 "이번 상환 완료가 BLBI 채무자들의 부채에 대한 국가의 법적 청구권이나 추심 권리가 소멸됨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력히 선을 그었다. 이어 "정부와 인도네시아은행 간의 채권·채무 관계가 완전히 종결되었을 뿐이며, 과거 정부 지원을 받았거나 공적자금을 통해 자본확충이 이뤄진 은행의 관련 채무자들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범정부 차원의 자산환수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은닉 재산 추적 및 자산 압류 등 BLBI 관련 미상환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 환수 조치를 멈추지 않고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지 금융권 및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국채 완제가 인도네시아 국가 재정의 대외 건전성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 재정을 짓눌러온 수십 년 묵은 구조적 부채를 청산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숨통을 틔우는 동시에, 프라보워 정부의 중장기 국가 개발 정책 추진에도 긍정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JEJU 2026

초 대 장

제 107회 전국체육대회
재인도네시아 선수단 출정식

존경하는 재인도네시아 동포 여러분,
우리 재인도네시아 선수단의 선전과 건투를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출정식을 개최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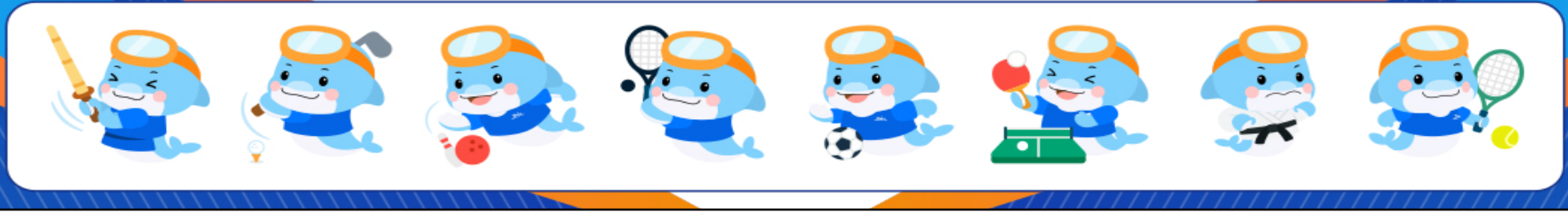


2025년 재인도네시아 선수단 출정식

일시	2026년 10월 7일(수) 오후 3시 30분
장소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1층 대강당
선수단 복장	붉은색 단복 착용
	(단복이 없는 분은 긴팔 바틱 또는 한복 착용)
참석문의	사무국 / 김종희 사무총장 0815-1902-0341

회장 김태화
단장 양영연 / 기수 김희익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KOREAN SPORTS ASSOCIATION IN INDONESIA



인도네시아 정부, 자동차 산업 내 AI·반도체 도입 가속화… 日 협력사와 비즈니스 미팅 개최



수시위조노 무기아르소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차관은 일본 나고야에서 자국 자동차 산업 관계자 및 일본 파트너들과 함께 비즈니스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20/9/2026) (Foto: Dok. Kementerian Koordinator Bidang Perekonomian)

인도네시아 정부가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환경에 발맞춰 자국 자동차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기술의 도입 촉진에 나섰다.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는 지난 19일 일본 나고야에서 자국 자동차 업계 관계자 및 일본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함께 '비즈니스 오찬 간담회'를 열고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제조정부의 나고야 실무 방문 일정 중 열린 이번 포럼에는 수시위조노 무기아르소(Susiwijono Moegiarso) 경제조정부 차관과 알리 무르토포 심볼론 통상디지털경제조정차관보 등 정부 대표단을 비롯해 PT 토요타 모터 매뉴팩처링 인도네시아(TMMIN), 덴소, 아이신, 어드빅스 등 주요 완성차 및 부품 제조사 경영진이 대거 참석했다.

수시위조노 차관은 "산업 경쟁력은 단순한 생산 역량을 넘어 기술 습득, 인적 자원 강화, 견고한 공급망 생태계의 결합을 통해 구축된다"며 자동차 산업의 반도체 부품 및 지능형 기술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기술 생태계와의 연계 강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초 글로벌 기술 기업 ARM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WAICO)에 가입한 데 이어, 팍스 실리카(PAX Silica)와도 사전 조율을 진행하는 등 첨단 기술 생태계 편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출 기회 창출과 시장 접근성 확대를 위해 FTA와 CEPA 등 총 25건의 국제 무역 협정을 체결·비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도네시아-EU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IEU-CEPA)은 올해 11월 비준 절차를 거쳐 2027년 1월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어, 향후 글로벌 시장 확대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계의 현실적인 건의사항도 폭넓게 다뤄졌다. 재계 관계자들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협력 중소기업(IKM)에 대한 금융 지원 접근성, 국산부품사용요건(TKDN) 인증 절차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특히 전동화 전환 과정에서 부품 국산화율 제고가 공급업체 생태계의 준비 상태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으며, 정부 측은 투자 저해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도네시아가 단순한 소비시장을 넘어 100개국 이상으로 수출하는 글로벌 자동차 공급망의 핵심 생산 기지이자 일본의 전략적 파트너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양국 정부와 산업계는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푸르바야 전 재무장관 서명’ 10만 루피아권 지폐 수집 열풍…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법적 효력 여전”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Purbaya Yudhi Sadewa) 전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의 서명이 기재된 10만 루피아권 지폐가 최근 대중과 화폐 수집가들 사이에서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22일 현지 금융권 및 소셜미디어(SNS)에 따르면, 2026년 대통령령 제97/P호에 따라 지난 9월 14일 푸르바야 장관이 퇴임하고 수아하시일 나자라(Suahasil Nazara) 후임 장관이 임명되면서 해당 지폐가 화제의 중심에 올랐다.

주목을 받는 화폐는 2026년에 인쇄된 2022년 발행 연도(TE)의 10만 루피아권 지폐다. 해당 지폐에는 당시 재무부 장관이었던 푸르바야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총재였던 페리 와르지요(Perry Warjiyo)의 서명이 나란히 기재되어 있다. 현재 두 인물 모두 관직에서 물러나면서, 두 사람의 서명이 함께 담긴 지폐의 희소성이 부각되는 모양새다.

특히 푸르바야 전 장관의 재임 기간이 약 1년에 불과해 해당 서명이 들어간 화폐의 발행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수집가들의 심리를 자극했다. 온라인 SNS 등지에서는 ‘지갑 속 지폐를 확인해보라’는 게시물이 연이어 공유되며 소장 열풍이 번지고 있다. 다만 수집 대상으로서의 인기가 곧바로 지폐의 실질 가치 상승이나 고가 거래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처럼 해당 지폐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문의가 잇따르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공식 입장을 내놓고 진화에 나섰다.

람단 데니 프라코소(Ramdan Denny Prakoso)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전무이사 겸 커뮤니케이션국장은 22일 성명을 통해 “서명 당사자인 두 관료가 현재 직에서 물러났더라도, 해당 지폐는 법적 효력을 지닌 통화이며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여전히 유효한 지급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데니 국장은 “재무부 장관이나 중앙은행 총재의 교체는 이미 유통된 루피아 화폐의 유효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며 “향후 새로 제조될 지폐에는 규정에 따라 현직 관료들의 서명이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은행 측은 화폐법 2011년 제7호 제5조 제1항 및 금융부문 개발·강화에 관한 법률(P2SK법)에 따라 지폐 제조 당시 재임 중이던 대표자들의 서명이 정상적으로 날인된 합법적인 화폐인 만큼, 통용에 아무런 혼선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Purbaya Yudhi Sadewa) 전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의 서명이 기재된 10만 루피아권 지폐 (Foto: Istimewa)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전자상거래 플랫폼 PPh 22 징수 11월 전격 시행… “영세 중소기업 보호 장치 마련돼야”

- 10월 말 유예 종료 따라 11월 1일부터 총매출액의 0.5% 원천징수 재개
- 쇼피·토코페디아 등 주요 4대 플랫폼 지정… 연매출 5억 루피아 초과 판매자 대상
- 경제계 “자동화·통합 시스템 구축으로 이중과세 및 행정 부담 방지해야” 촉구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오는 2026년 11월 1일부터 주요 전자상거래(마켓플레이스)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 소득세(PPh) 제22조 징수를 본격적으로 재개한다. 당초 국민 구매력 보전과 유관 기업들의 과세 인프라 정비를 위해 2026년 10월 31일까지 시행이 유예되었으나, 예정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과세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다.

시행 시점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주력 판매 채널로 삼고 있는 영세·중소기업(UMKM)들의 우려와 함께 실효성 있는 징수 방식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대 플랫폼 징수 대행… 연매출 5억 루피아 초과 판매자가 대상

재무부령(PMK) 제37호 2025년 규정에 따르면, 전자시스템을 통한 무역(PMSE) 운영자로 지정된 마켓플레이스는 입점 판매자의 거래에 대해 소득세(PPh) 제22조를 징수해야 한다. 세율은 부가가치세(PPN)와 사치품판매세(PPnBM)를 제외한 순수 총 매출액(또는 거래가액)의 0.5%다.

국세총국(DJP)은 이미 지난 2026년 7월 1일 자로 블리블리(Blibli), 쇼피(Shopee), 토코페디아(Tokopedia), 라자다(Lazada) 등 인도네시아 내 핵심 4대 이커머스 플랫폼을 세금 징수 의무를 지는 ‘원천징수 대행자’로 지정한 바 있다.

거래 구조는 소비자가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물품 대금을 결제하면, 플랫폼 측이 판매자의 소득에서 PPh 제22조에 해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플랫폼은 징수한 세액을 국고에 대납하고, 통합 PPh 월 신고서(SPT Masa PPh Unifikasi)를 통해 과세 당국에 일괄 보고하게 된다.

단, 모든 영세 사업자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본 과세 조치는 연간 총매출액이 5억 루피아를 초과하는 판매자에게만 선별 적용된다. 현행 법령상 연매출 5억 루피아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법적 보호를 받는다.

국세총국 “추가 지침 없어… 일정대로 준비 상태 맞춰 시행”

비모 위자얀토 국세총국장은 최근 2026년 9월 국가예산(APBN KiTa) 실적 보고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과세 재개 방침을 명확히 했다.

비모 국장은 “마켓플레이스 과세는 10월 31일까지 유예된 상태였다”며 “플랫폼들의 전산 및 업무 준비 상황에 발맞추어 예정대로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아하실 나자라 재무장관의 추가적인 세부 지침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기존에 공표된 법령과 지침에 따라 진행되는 사안”이라며 “장관의 특별한 추가 지침은 아직 없으며, 기존 결정에 근거해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별도의 추가 유예 조치가 없는 한 과세는 정해진 일정대로 집행될 전망이다.

전문가 “단순 세수 증대 넘어 중소기업 친화적 시스템 구축 필수”

제도 시행이 가시화되자 학계 및 경제 전문가들은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들이 겪을 혼란과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인도네시아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의 M 리잘 타우피쿠라만 이코노미스트는 국영 안타라(ANTARA)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PPh 제22조 징수 체계의 ‘완전한 자동화’와 ‘데이터 통합’을 강하게 촉구했다.

리잘 연구원은 “세금 징수 절차는 납세자 식별번호(NPWP) 및 주민등록번호(NIK), 그리고 플랫폼 내 거래 데이터와 시스템적으로 완벽히 연동되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이중과세를 원천 차단하고, 가뜩이나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0.5%라는 세율 자체는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으나, 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방식은 마진율이 극히 얇은 소상공인들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제도 도입으로 인해 판매자의 수익성이 악화되거나 물가 인상으로 전가되는 부작용, 또는 판매자들이 세 부담을 피해 공식 플랫폼을 이탈하여 음성적인 장외 거래로 숨어드는 ‘풍선 효과’를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리잘 연구원은 “연매출 5억 루피아 이하 영세 판매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이번 정책의 성패는 단순히 국고로 유입되는 추가 세수 규모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세무 순응 비용(compliance cost)을 최소화하면서도 자발적 납세 준수율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제언했다.

디지털 경제 전환기 속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가 세수 기반 확충과 영세 온라인 생태계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인도네시아 노동계, 프라보워 대통령에 '11개 항 요구 서한' 전달… 자카르타 도심 대규모 집회 돌입

- 두둥 비서실장 접견… 친노동 법안 개정 · 아웃소싱 착취 중단 등 촉구
- 정부 "노동자 권익 보호 의지 확고… 주무 부처 및 국회와 해결책 모색"
- 18개 노조 연대 분다란 HI 시위 전개, 국회 앞 릴레이 후속 투쟁 예고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주요 노동단체 대표단이 대통령궁을 예방해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을 향한 11개 핵심 요구안을 전달했다. 9월 24일 자카르타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기 직전 성사된 이번 면담을 통해 정부는 대화 의지를 표명했으나, 노동계는 요구안 관철을 위해 국회 앞 릴레이 시위를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2026년 9월 24일, 전인도네시아노동조합총연맹(SPSI), 인도네시아 노동조합동맹총회(KASBI) 등으로 구성된 노동단체 대표단은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두둥 압두라흐만(Dudung Abdurachman) 인도네시아 대통령 비서실장(KSP)을 면담하고,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공식 요구 서한을 제출했다.

이번 접견은 자카르타 중심부인 분다란 HI(호텔 인도네시아 로터리) 일대에서 예정된 대규모 노동자 집회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면담 직후 두둥 비서실장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오늘 노동단체 대표단을 직접 접견하여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며 "정부와의 대화와 소통이라는 공식적 채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기로 결정한 노동조합 지도부의 뜻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계가 전달한 11개 요구안은 관련 소관 부처와 국회(DPR)에 빠짐없이 전달될 것이며, 구체적인 정책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두둥 실장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노동권 보호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프라보워 대통령께서는 노동자의 보호와 복지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며 "지난 2026년 5월 1일 노동절 기념사에서도 대통령께서는 노동자의 권익을 수호할 것임을 천명하신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항상 대화의 장을 열어두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제출된 11개 요구안의 핵심은 친노동자 성향의 법 개정, 고용 보장 및 무분별한 외주 용역(아웃소싱)·계약직·수습 및 인턴십 제도의 악용 방지, 생활 물가를 반영한 적정 임금 보장, 급증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 퇴직금 수급권 보장 및 결사의 자유 확대 등"이라고 전했다.

이번 연대 투쟁을 이끄는 전인도네시아노동조합총연맹 화학·에너지·광산 노동조합연맹(PP FSP KEP SPSI)의 R. 압둘라 위원장은 이번 집회가 광범위한 연합전선으로 구축되었음을 역설했다. 압둘라 위원장은 "우리는 18개 전국 단위 노조 총연맹과 147개 산별 연맹이 결집한 '인도네시아 노동투쟁 대연합' 소속"이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국가 최고 통치권자인 공화국 대통령께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가 담긴 청원서를 공식 전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서한 전달에 그치지 않고 예정된 장외 투쟁을 강행했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동맹총회(KASBI)의 수나르노 위원장은 시위대가 자카르타 주요 교통 결절점인 심팡 스망기(Simpang Semanggi)에서 집결해 분다란 호텔 인도네시아(HI) 구역까지 평화 행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노동계의 투쟁은 향후 국회 입법 일정에 맞춰 장기화될 전망이다. 수나르노 위원장은 "분다란 HI 인근에 모인 조합원들에게 청원서 전달 결과를 공유하고 대정부 투쟁의 동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어 9월 2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후속 시위를 진행하고, 나아가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스나얀 국회의사당 일대에서 집중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연속 집회 일정의 배경에 대해 "10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논란이 되는 관련 법안의 가결 처리가 시도될 것이라는 신빙성 있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시위대를 차단하는 경찰 (Sumber foto: Istimewa)

[참고]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전달된 노동계 11대 핵심 요구안

친노동자 성향의 노동보호법 제정

고용 안정성 확보 및 착취 방지: 무분별한 아웃소싱(외주) 제도 폐지, 계약직 노동자 착취 중단, 수습·인턴십 제도의 탈법적 악용 근절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적정 임금 보장: 투명성이 결여되고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임금 산정 특정 수치 계수 제도 폐지

신종 노동 형태 및 취약 직군 보호: 언론 노동자,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ojol) 운전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기후 정의 전환에 따른 직간접 피해 노동자 대책 마련

고용권 보장: 법정 퇴직금 수급권의 실질적 보장 및 기업의 일방적 정리해고(PHK) 방지 대책 강구

노동권 확대: 노동조합의 교섭 역량 강화 및 헌법상 결사의 자유 보장

산업안전 및 보건 환경 개선: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자 복지를 국가 경제 발전 전략의 최우선 순위로 격상

사법 집행력 강화: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엄격한 법 집행

여성 노동권 보장: 증빙 서류(진단서 등) 제출 의무를 강제하지 않는 무조건적 생리휴가 보장을 포함한 여성 노동자 전반의 권익 신장

취약계층 포용 고용: 장애인 및 사회적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의무적 일자리 기회 제공 및 차별 철폐

산업 전환기 미래 직무 역량 강화: 기술 혁신 및 자동화 중심의 산업 재편에 발맞춘 인도네시아 노동자 맞춤형 숙련도 향상(업스킬링) 및 직무 재교육(리스킬링) 국가 지원 프로그램 시행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woori consulting
우리컨설팅
비자 법인 인허가 수출입 부동산 채용
+62 8111-543-456
hzkim2003 | wooricon2
+62-21-7918-4239
master@woori-consulting.com

YSM

YI SENG MIN & PARTNERS 법률사무소

소송.중재(Litigation.Arbitration)
민사소송.형사소송.파산소송.채무지불의무연기소송.행정소송.
노사분쟁소송.지식재산권소송.중재

기업법무(Corporate)
법률의견서.계약서.담보권설정.정관 개정.청산.철수.자문변호사

관재(Bankruptcy.PKPU)
파산관재.채무지불의무연기관재

투자(Investment)
법률실사.인수.합병.분리.차명투자.지분참여.현지법인설립.
대표사무소개설

부동산(Real Estate)
부동산실사.매매중개.임대차중개

자원 개발(Natural Resource)
광산실사.오일팜농장실사.인수.지분참여

가족법(Family)
상속.부부재산분리.혼인.이혼.입양

지식재산권(IPR)
지식재산권소송. 지식재산권등록

공증 지원(Notarization Support)
공증 지원. 아포스티유(Apostille) 지원

사용언어(Language) : 한글.Bahasa Indonesia.English

Korea Center Building, 6th Floor, Suite 606,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No. 58, Jakarta 12950
Tel. : (021)525-5959. 527-2422

대표변호사 이 승 민
YI SENG MIN, SH., MH.
Attorney at Law
MP. : 0816-1911-245
yisngmin@gmail.com

바흘릴 장관 “인도네시아, 바이오에탄올 ‘E50’ 도입 시 휘발유 수입 전면 중단 가능”

- 2027년 E10 시작으로 2028년 E20 등 단계적 확대 구상 밝혀
- 프라보워 대통령, ‘에너지 자립’ 국가 전략 지시… 수입 의존 굴레 탈피 총력
- 국내 농산물 활용 통한 원료 자급이 핵심 관건… “원료 수입은 어불성설”

인도네시아 정부가 만성적인 해외 화석연료 의존 구조에서 탈피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바이오에탄올 혼합 비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에탄올을 절반 수준까지 섞는 ‘E50’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완제품 휘발유 수입을 완전히 중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바흘릴 라하달리아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장관은 지난 2026년 9월 21일(현지시간) 수도 자카르타에서 열린 광물석탄총국(Minerba) 창립기념일 행사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바이오연료 의무화 정책의 장기 비전을 제시했다.

바흘릴 장관은 “우리가 바이오에탄올 혼합 의무화를 ‘E50’ 수준까지 차질 없이 실행할 수 있다면, 최종 목표인 완제품 휘발유 수입의 전면 중단을 실현하는 유력한 계기를 맞이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 에너지 안보가 더 이상 대규모 해외 수입에 취약하게 흔들리지 않는 자립 구조를 확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로드맵 설계 착수… 2027년 E10, 2028년 E20 ‘단계적 확대’ 추진

다만 바흘릴 장관은 E50 제도를 통해 휘발유 수입 의존도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도달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는 세부 실행 로드맵 수립과 국내 공급망 여건에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흘릴 장관은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향후 수립될 로드맵의 완성도에 달려 있다”며 “앞서 국가에너지위원회(DEN) 본회의에서 기본 방향성에 대한 초기 결정이 내려진 만큼, 현재 에너지광물자원부 석유가스총국(Ditjen Migas)과 긴밀히 협력해 실행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과제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구상 중인 에너지 믹스 전환 로드맵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점진적 단계 확대’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발표된 국가 에너지 정책 전망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는 2027년 에탄올 10% 혼합인 ‘E10’을 도입한 뒤, 2028년 ‘E20’으로 비중을 끌어올리고, 궁극적으로 최종 지향점인 ‘E50’에 도달한다는 구상이다.

‘국내 원료 자급’이 절대적 전제 조건… “에탄올 수입해 혼합하는 것은 어불성설”

정부의 야심 찬 계획에도 불구하고 넘어야 할 과제는 명확하다. 핵심은 에탄올의 원료가 되는 사탕수수, 카사바 등 국내 농산물 생산 능력과 가공 인프라의 뒷받침 여부다. 바흘릴 장관은 정책 추진 속도를 국내 산업계의 수용 및 준비 태세와 철저히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에너지 믹스 확대는 반드시 우리 국내 산업의 역량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고 못 박으며 “E10, E20, E50을 의욕적으로 도입하더라도 정작 혼합할 에탄올 원료를 해외에서 다시 수입해 와야 한다면 정책의 본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농업 및 바이오 자원을 최우선으로 활용해 자급자족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정책의 절대적 전제 조건”이라고 역설했다.

프라보워 대통령, 지정학적 리스크 속 ‘에너지 자립’ 특명



Menteri ESDM Bahlil Lahadalia. (istimewa)

이번 정책 드라이브의 배경에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강력한 에너지 안보 확보 의지가 깔려 있다. 앞서 프라보워 대통령은 2026년도 국가에너지위원회(DEN) 제1차 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동 지역 등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 요인, 국내 화석연료 비축 실태, E50 목표 추진 상황, 석유가스법 개정안(RUU Migas) 등 에너지 전략 현안 전반을 종합 점검했다.

이 회의에서 프라보워 대통령은 수입 석유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취약 구조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 관계 부처에 E50 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수립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

바흘릴 장관은 지난 9월 17일 자카르타 메르데카궁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상기하며 “대통령께서 E50 체제 구축을 조속히 현실화하라는 특명을 내리셨다”면서 “현재 인도네시아의 연간 디젤유 소비량은 약 3,900만 킬로리터(kL)에 달하며, 휘발유 소비량 역시 연간 3,900만~4,000만 kL 수준에 육박하는 등 연료 수요가 막대하다”고 짚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연료 수입 비용 절감과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바이오연료 생태계를 집중 육성하는 동시에, 전통적인 화석연료 생산 역량 제고도 병행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요 신규 유전 분지와 미개발 광구에 대한 대규모 탐사를 촉진하고, 생산성이 저하된 노후 유정의 회수율을 최적화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통해 국가 에너지 자립망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coway
TALK
한인기업 특별 상담
0811-9294-114

Pratama 그룹 2026년 공채모집공고

PT. Pratama Abadi Industri 는 1989년 설립되어 36여년간 지속가능경영을 이어온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인도네시아 단일기업으로는 Nike 운동화 최대 생산업체로, 연간 4천만족의 생산 Capacity 와 대규모 종업원을 보유하여 Tangerang, Sukabumi, Brebes 및 Garut 지역에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동화 제조 관련 금형 등 자회사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 **사원 수 :** 43,000 여명

■ **설립일 :** 1989년

■ **업종 :** 신발제조업

■ **근무처 :** PRATAMA 그룹 (브레베스, 수까부미, 가룻)

■ **채용 분야 :**

- Bottom: IP, CP/CMP, Outsole, PU
- 생산: 재단, 재봉, 준비, 제화"

■ **채용 조건 :**

해당경력 10년 이상
인니어 가능자, 해외거주 경험

■ **희망 임금 수준 :** 채용 시 협의

■ **가족동반 여부 :** 가족동반자의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주택, 자녀학자금, 의료비 지원

■ **제출 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 **제출기한 :** ASAP

■ **서류 제출처 및 문의처 :** kb.lee@pratama.net

■ **선발 절차 :**

- 서류전형
- 실무면접
- 경영진 면접
- 건강검진

■ **근무요일/시간 :** 주 5일((생산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7:00 ~ 17:00

■ **지원 방법 :** 이력서 이메일 발송

인도네시아, 바이오에탄올 산업에 200만ha 부지 조성… 에너지 자립 가속

사탕수수 · 카사바 · 옥수수 3대 작물 중심 대규모 농업단지 구축
국영기업 · 민간 협력 유치… 800만 개 일자리 창출 및 500조 루피아 외환 절감 기대



안디 암란 술라이만(Andi Amran Sulaiman) 인도네시아 농무부 장관 Mentan Andi Amran Sulaiman (Foto: Istimewa)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가 바이오에탄올 산업 육성과 에너지 자립을 위해 최대 200만 헥타르(ha) 규모의 부지 조성에 착수한다. 정부는 대규모 농업 원자재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 국영기업(BUMN) 및 민간 부문의 전략적 투자를 이끌어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안디 암란 술라이만(Andi Amran Sulaiman) 인도네시아 농무부 장관은 자카르타에서 주요 생산 지역 군수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바이오에탄올 개발 가속화 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암란 장관은 "에너지 자립을 위한 바이오에탄올 개발은 단순히 가공 공장 건설에 그쳐서는 안 되며,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뒷받침할 농업단지가 반드시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은 사탕수수, 카사바, 옥수수 등 3대 핵심 작물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전국적으로 100만~200만 헥타르 규모의 전용 부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투자 재원은 국영기업과 민간 부문의 시너지를 통해 마련된다. 정부는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부지의 법적 안정성과 가용성을 사전에 보증하고, 초기 국영기업 주도의 투자가 궤도에 오른 뒤 민간 자본을 점진적으로 흡수하는 방식을 취할 계획이다. 지분 구조는 국영기업이 약 30%, 민간이 70%를 분담하는 모델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암란 장관은 환경적 측면과 포용적 성장도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했다. 산림보호구역 해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하고 혼농임업(아그로포레스트리) 등 전환 가능한 유휴 부지를 우선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 개발 과정에서 일반 국민의 지분을 최소 30% 보장해 대기업 중심의 독점을 방지하고 지역 서민 경제와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바이오에탄올 산업 육성이 실현될 경우, 재배부터 가공·에너지 생산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최소 800만 개의 상용직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기존 화석연료 수입을 국내 생산 재생에너지로 대체함으로써 연간 약 500조 루피아(IDR)의 외환 유출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에너지 주권 확립 기조에 맞춰 혼합 비율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5(에탄올 5% 혼합)와 E10을 거쳐 오는 2029년까지 E20을 도입하고, 2030년대 초반에는 E4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로드맵을 확정했다. 암란 장관은 "에너지와 식량 주권 확립은 인도네시아가 도약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연내 가시적인 사업 착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인도네시아 'QRIS 국경 간 결제', 유엔 2026 '50-in-5 어워즈' 수상… 외국인 결제액 5조 9,000억 루피아 돌파

- 제81차 유엔총회서 '디지털 공공 인프라' 연계 공로 인정받아 협력 부문 영예
- 한국·일본·태국 등 파트너국 확대… 인바운드 결제 규모 아웃바운드 대비 3배 이상
- 가맹점 96% 이상이 중소·영세기업… 외화 수입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견인

[뉴욕=외신 종합] 인도네시아의 국가 표준 디지털 결제 시스템인 'QRIS(Quick Response Code Indonesian Standard) 국경 간 결제(Cross-Border Payment)'가 글로벌 무대에서 혁신성과 공공성을 인정받으며 디지털 금융의 모범 사례로 부상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ank Indonesia, 이하 BI)은 2026년 9월 21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81차 유엔총회(UNGA) 부대행사인 '50-in-5 마일스톤 이벤트(50-in-5 Milestone Event)'에서 QRIS 국경 간 결제 이니셔티브가 '50-in-5 어워즈 2026(50-in-5 Awards 2026)'의 '협력(Collaboration) 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운용성과 포용성을 겸비한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 확산에 기여한 주체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글로벌 디지털 협력체인 디지털 공공재 연합(DPGA)과 코디벨롭(Co-Develop)이 인도네시아가 구축한 포용적 국경 간 디지털 결제 생태계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여 수여를 결정했다. 시상식 현장에서는 린지 크럼보(Lindsey Crumbaugh) Co-Develop 최고투자책임자(CIO)가 인도네시아 정부 및 중앙은행을 대표해 참석한 필리아닝시흐 헨다르타(Filianingsih Hendarta) BI 부총재에게 상패를 직접 전달했다.

■ '단일 시스템' 강요 없는 상호운용성… 국경 간 금융 연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50-in-5' 캠페인은 오는 2028년까지 전 세계 50개국이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상호운용이 가능한 디지털 공공 인프라를 설계·도입·확대하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연대 프로젝트다. 이 가운데 '협력 부문'은 국가 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기술적 완성도, 보안성, 포용성, 그리고 실질적인 구현 성과를 증명해 낸 공공 인프라 확산 모델을 엄격히 심사해 시상한다.

인도네시아의 QRIS 국경 간 결제는 각국이 서로 다른 결제 시스템과 금융 규제 거버넌스를 유지하면서도 상호 연결될 수 있다는 독창적인 연결성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회의 극찬을 받았다.

필리아닝시흐 헨다르타 BI 부총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QRIS 국경 간 결제의 성공은 글로벌 상호운용성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반드시 획일화된 단일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음을 입증한다"라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동일한 목표의식, 상호 신뢰, 합의된 표준, 그리고 각국이 이미 보유한 고유 시스템을 연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필리아닝시흐 부총재는 "이번 수상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자국 정부, 인도네시아 지급결제협회(ASPI), 국내외 결제 산업계가 함께 이뤄낸 민관·국제 협력의 결실"이라며, "결제 시스템의 연결은 단순한 기술적 결합을 넘어 국민을 잇고 국경을 초월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 외국인 결제 유입 5조 9,000억 루피아 기록… 결제 흑자 규모 4조 루피아 상회

QRIS 국경 간 결제 네트워크는 현재 한국을 비롯해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중국 등 주요 아시아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서비스 영역을 가파르게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국가 간 결제망 연결은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로 직결되고 있다. 2022년 시스템이 최초 도입된 이래 2026년 7월까지 파트너 국가 이용자가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 결제한 인바운드(Inbound) 거래 건수는 누적 2,100만 건, 거래 금액은 5조 9,000억 루피아(약 5,1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50-in-5 어워즈 2026'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수상했다. (21/9/2026)

반면, 동일 기간 인도네시아 국민이 해외 파트너 국가를 방문해 QRIS로 결제한 아웃바운드(Outbound) 실적은 467만 건, 1조 7,300억 루피아(약 1,500억 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로 유입된 국경 간 결제액이 유출액 대비 4조 1,700억 루피아(약 3,600억 원)를 초과하며 막대한 결제 흑자를 달성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인도네시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과 비즈니스 방문객 사이에서 QRIS가 보편적인 지불 수단으로 완전히 안착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한다. 번거로운 환전 절차나 신용카드 해외 결제 수수료 부담 없이 자국 결제 앱으로 즉시 결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진작은 물론 국가 외화 수입 증대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다.

■ 4,500만 가맹점 돌파… 골목상권 영세기업(UMKM) 해외 진출의 교두보

QRIS 국경 간 결제가 글로벌 사회로부터 '포용적 인프라'로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영세·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2026년 7월 기준 인도네시아 전역의 QRIS 가맹점 수는 4,546만 개를 돌파했으며, 이 중 무려 96.69%가 중소·영세기업(UMKM)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 해외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POS)를 구비할 여력이 없던 로컬 시장의 소규모 상인이나 노점상들은 별도의 추가 장비나 복잡한 시스템 도입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국내용 QR코드 하나만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결제를 즉각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 공공 인프라가 대기업이나 대형 유통망에 집중되지 않고,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글로벌 관광 경제의 직접적인 수혜자로 연결하는 포용성을 증명한 셈이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이번 유엔 50-in-5 어워즈 수상을 모멘텀 삼아 무역, 관광, 인적 교류 측면에서 경제적 연계성이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QRIS 국경 간 결제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한 인도네시아의 포용적 금융 모델이 글로벌 결제 생태계의 표준화 논의에서 지속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의 필리아닝시 헨다르타 부총재가 미국 뉴욕에서 코디벨롭(Co-Develop)의 린지 크럼보 최고투자책임자(CIO)가 수여한 '50-in-5 어워즈 2026'을 인도네시아를 대표하여 수상했다. (21/9/2026). (Foto: Dok. Bank Indonesia)


가야성
Ga Ya Sung
중화 요리 전문점
Since 1997
New!
자연을 마시다,
리얼 코코넛!
지금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개 구매 시
45K
2개 구매 시
더~욱 저렴하게!
75K
100% REAL COCONUT
시원하게! 건강하게! 코코넛 한 잔의 힐링!
100% 자연 그대로
수분 가득 수분 보충
저칼로리 건강한 선택
시원하고 상쾌하게!
예약 문의
081295094658
지금이 기회!
한정 기간 특별 가격 놓치지 마세요!
COCONUT
Fresh & Natural
Ga Ya Sung | Grand Wijaya Center Blok F No. 48 | Jakarta Selatan

다운스트림 산업화가 여는 인도네시아 밸브 시장, 그 안의 경쟁 구도와 기회

다운스트림 산업화가 여는 인도네시아 밸브 시장, 그 안의 경쟁 구도와 기회

HS Code 및 상품명

HS Code	품목명
848180	관, 보일러 셸, 탱크, 통 등에 사용되는 탭, 콕, 밸브 및 이와 유사한 기기 (압력조절 밸브 및 온도조절식 밸브 포함) - 기타 기기: 철강제 탭, 콕 및 이와 유사한 기기

시장동향

인도네시아의 제조업과 채굴산업은 정부의 천연자원 다운스트림(hilirisasi) 정책과 국가 에너지 인프라 개발에 힘입어 현재 대대적인 확장 국면에 있다. 정부는 부가가치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 다운스트림화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전기차(EV) 및 배터리와 같은 전략 산업 생태계 발전의 토대로 삼고 있다. 8%의 국가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대규모 투자 확대가 요구된다. 다운스트림 부문 투자 자체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5년 1~9월 기준 총 431조4000억 루피아로 전체 실현 투자액의 30.1%를 차지했다.

에너지 및 광업 부문은 이러한 정책 의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정부는 다운스트림 프로그램의 초점이 되는 28개 우선 품목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했으며, 2040년까지 잠재 투자 규모는 6181억 달러, 흡수 가능한 고용 인원은 300만 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한 수출액은 857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큰 틀 안에서 인도네시아의 밸브 산업은 매우 전략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밸브는 상류부문 석유·가스(탐사, 생산, 가공, 저장, 운송, 에너지 유통), 발전소, 석유화학 공장, 수처리 시설, 니켈 및 보크사이트 제련소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생산 부문에서 유체 흐름을 조절하는 핵심 부품이다.

정부는 국제 기술 및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밸브를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산업의 역량이 국가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있다.

국내 밸브 산업의 발전은 고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제 PT Teknologi Rekayasa Katup(TRK)과 같이 100% 현지 생산 방식의 현대적인 볼 밸브 제조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능력은 1만2000대에 달하고 제품은 내수용뿐 아니라 중동 지역으로도 수출되고 있다.

국내 산업 강화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국산부품사용률(Tingkat Komponen Dalam Negeri/TKDN)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TKDN은 이제 석유·가스 기업들의 핵심성과지표(KPI)로 자리잡았으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상류부문 석유·가스 지출 실적은 388조 루피아, TKDN 이행률은 59%에 달한다. 정부는 또한 TKDN 심사 절차를 더 신속하고 투명하게 하고 국내 산업에 시장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2025년 제35호 산업부 장관령(Permenperin)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산 제품에 대한 의존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석유·가스 업계 관측통들은 국내 산업이 국가 에너지 무대의 방관자에 머무르지 않고, 여전히 외국산이 주도하는 밸브, 파이프, 소프트웨어와 같은 장비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TKDN 요건 충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또한 국산 제품 사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미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제품을 계속 수입하는 사례에 허점이 없도록 관리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인도네시아 밸브 시장을 매우 유망하면서도 경쟁이 치열한 시장으로 만들고 있다. 유통업체든, EPC 계약업체든, 최종 사용자든 사업 참여자 입장에서는 시장 동향, 수입 규제, 제품 대체 기회를 파악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다. 여러 글로벌 브랜드가 공식 유통업체 또는 현지법인을 통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강한 입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석유·가스, 석유화학 등 중공업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전동 액추에이터 및 밸브 시장은 석유·가스, 발전, 수처리 부문의 수요에 힘입어 2025년 기준 기존 7억 달러에서 1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 인도네시아는 전동 컨트롤 밸브의 경우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국내 공급량의 약 70~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주요 수입국은 일본, 한국, 중국, 싱가포르와 독일·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이다. 추가로, CAGR(연평균 성장률) 기준 지난 5년간 밸브 수입 증가율은 1.6% 수준이며, 2028년까지 비슷한 수준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주요 밸브 브랜드(HS 코드 848180)>

브랜드	원산지	비고
Emerson (with brands ASCO, TopWorx)	미국	솔레노이드 밸브, 레귤레이터, 리밋 스위치 부문에서 PT Valve Automation Indonesia(PTVAI)가 대리
Rotork	영국	공압, 전동, 유압 등 다양한 밸브 액추에이터 부문에서 PTVAI가 대리
IMI (with brands CCI, Orton, Truflo, Italy, Bopp & Reuther)	영국	고난도 환경용 컨트롤 밸브, 트리플 오프셋 버터플라이 밸브, 트러니언 마운트 볼 밸브, 압력안전밸브 부문에서 PTVAI가 대리
Duvalco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내 첫 밸브 생산공장 건설 계획 중(서부자바 중공 지역). 게이트 밸브, 버터플라이 밸브 등의 제품을 판매
OMS	이탈리아	PT Katup Industri Indonesia(KII)와 기술 라이선스(기술이전) 파트너십을 체결. OMS가 이탈리아 외 지역에 라이선스를 부여한 것은 처음

[자료: 수라바야 무역관 자체 조사]

1) 전망 및 예측 및 시장 전망

인도네시아 밸브 시장(HS 코드 848180)은 견고한 국내 수요와 정부의 전략적 정책에 힘입어 향후 10년간 긍정적인 성장 전망을 보이고 있다. 밸브 시장은 2035년까지 연평균 약 6~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전동 컨트롤 밸브 부문에서 강한 성장세가 예상된다. 전체 시장 규모는 2025년 기준 기존 7억 달러에서 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 주요 성장 동력

· 다운스트림 산업화 및 광업: 니켈, 보크사이트, 구리 제련 등 진행 중인 다운스트림 프로젝트와 에너지 인프라 개발이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 에너지 부문 확대: 가스발전 및 지열발전 투자와 상류부문 석유·가스 생산 활동이 고사양 밸브에 대한 수요를 뒷받침할 것이다.

· 도시 인프라: 특히 PDAM(지방 상수도 공사)을 중심으로 한 상수도 및 관개시설 개발이 표준형 밸브에 대한 수요를 견인할 것이다.

· 애프터마켓 기회: 서비스 수명(8~12년)이 도래하는 산업용 밸브가 많아짐에 따라 예비부품, 교정 서비스, 액추에이터 업그레이드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과제 및 리스크

정부의 TKDN(국산부품사용률) 규제는 국산 부품 사용 확대를 목표로 하며, 이는 과제이자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국내 제조사를 지원하지만, 고도로 전문화되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밸브의 경우 단기간 내 수입 대체가 쉽지 않다. 여기에 더해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과 환율 변동성도 지속적인 리스크로 남아 있다.

4) 종합 평가

규제 및 경제적 역풍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밸브 시장은 야심찬 산업화 및 에너지 안보 정책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과 해외 공급업체 모두에게 이 시장은 특히 석유·가스, 발전, 광업 등 고부가가치 부문에서 상당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수입 동향

HS 코드 848180에 해당하는 밸브 제품은 여러 종류의 밸브를 포괄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산업용 밸브 유형(볼 밸브, 게이트 밸브, 체크 밸브/역지 밸브, 글로브 밸브, 버터플라이 밸브, 솔레노이드 밸브, 압력방출 밸브, 니들 밸브, 다이어프램 밸브) 외에도, 이 HS 코드에는 특정 용도의 다양한 유체제어 기기, 즉 탭·콕·밸브, 온도조절 밸브, 타이어용 밸브, 온도조절기, 기타 공정제어 밸브 등도 포함된다.

위 수입 표 데이터를 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수입액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인도네시아는 HS 코드 848180에 해당하는 밸브 제품을 9억256만9027달러 규모로 수입했으며, 2024년에는 1.79% 증가한 9억1876만8937달러를 기록했다. 이어 2025년에는 총 수입액이 9억4476만3771달러로 2.82% 증가했다.

2023~2025년 기간 동안 HS 코드 848180 밸브 제품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상위 4개국을 살펴보면, 2023년에는 중국이 3억6661만5288달러의 수출액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일본이 2위, 이탈리아가 3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2024년과 2025년에도 인도네시아에 대한 HS 코드 848180 밸브 제품 최대 수출국 지위를 유지했다. 한편 일본은 2024년 미국에 잠시 2위 자리를 내주었으나 2025년에 다시 그 자리를 되찾았다.

한편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은 2023년 3085만8176달러에서 2025년 1365만3227달러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러한 추세는 HS 코드 848180에 해당하는 밸브 제품에 한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위 데이터 표에서 특이한 점 한 가지는, 싱가포르가 제조업 국가가 아니라 다수의 국제 무역회사들의 거점으로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인도네시아 수출액이 상당히 크다는 점이다. 그러나 무역회사를 통한 구매는 가격과 비용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아닌가?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KOTRA 수라바야는 수라바야 소재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수라바야 소재 공급업체 중 한 곳인 PT Adhiwangsa의 영업 매니저 Vincent 씨에게 문의한 결과, 과거에는 탱커 프로젝트 수요를 위해 한국에서 여러 차례 밸브 제품을 수입한 적이 있으나, 최근에는 특히 표준 사양 제품의 경우 신속하게 공급 가능한 무역회사를 발견해 싱가포르로 거래처를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공급업체가 바탐(Batam)에 위치한 창고에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긴급 수요에 대한 납기도 빠른 편이며, 가격 또한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특수 사양이 필요한 밸브의 경우에는 고객이

생산 및 납품 기간을 기다릴 의향이 있다는 전제하에 여전히 한국에서 구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객이 가격에 매우 민감한 경우에는 중국산 다양한 밸브 제품을 조달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경쟁 동향

볼 밸브, 게이트 밸브, 체크 밸브/역지 밸브, 글로브 밸브, 버터플라이 밸브, 솔레노이드 밸브, 압력방출 밸브, 니들 밸브, 다이어프램 밸브 및 기타 컨트롤 밸브를 포함한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PT Sahabat Agung Citra, PT Stainless Steel Prima Valve Maju Bersama, PT Arita Prima Indonesia 등 여러 밸브 유통업체에 문의했다. 이들 3개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날 밸브 시장에서 최종 사용자들은 브랜드 인지도보다 제조국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중국산 밸브 및 부속품이 인도네시아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건설, 상수도 배관, 민간 부문 공장 등 비용에 민감한 분야에서 널리 채택되고 있다. 반면 발전, 석유·가스, 광업, 석유화학과 같이 안전 요건이 엄격한 산업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산 밸브를 주로 조달하며, 경우에 따라 한국산 밸브도 사용된다. 특히 고압 밸브 용도의 경우 대부분 중국 외 브랜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조선·해양 부문에서는 품질, 경쟁력 있는 가격, 안정적인 납기 등을 이유로 한국산 밸브가 선호되고 있다.

PT Sahabat Agung에 따르면 최근 많은 고객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유럽 또는 미국 브랜드 밸브를 한국산 밸브로 교체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경기 악화와 미국 달러 환율 영향으로 기존 밸브 가격이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밸브의 사양과 소재를 한국 제조사가 충족할 수 있는 한, 이러한 시장 기회는 여전히 넓게 열려 있다. 참고로 국영기업의 경우, 밸브 교체 입찰은 이제 OECD 회원국산 제품을 엄격히 기준으로 하고 있어 중국 및 인도산 제품은 해당 입찰에 참여할 기회가 없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몇몇 한국 밸브 브랜드가 상당히 잘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면 PK Valve (에너지 및 석유화학 산업용), Automa (자동밸브, 액추에이터, 컨트롤 밸브 등 공장 배관 시스템에 적용되며, 공압/전동 액추에이터부터 볼 밸브, 버터플라이 밸브까지 완전한 패키지를 제공), Komoto (고정밀 컨트롤 밸브, 압력조절기, 액추에이터 전문 브랜드로 화학공정, 발전, 통합 가스산업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 DKC Valve (내식성이 뛰어나 수처리, 화학산업, 식음료 부문에서 인도네시아 시장에 널리 유통되고 있음), KJS Samwoo / Samwoo Valve (인도네시아 현지 유통업체를 통해 공식 판매되며, 일반 산업용 배관 시스템에 필요한 매우 다양한 수동 밸브 라인업을 게이트 밸브, 글로브 밸브, 볼 밸브부터 주강 또는 스테인리스강 소재의 체크 밸브까지 폭넓게 제공), KSPC (산업용 탱크 안전장치, 즉 브리더 밸브 및 럽처 디스크 등 탱크 안전기기 전문), KCL (고성능 플러그 밸브 및 볼 밸브 용도로 폭넓게 사용), Autosigma (기계 자동화, 공장 설비, 배관 시스템, 기계·전기 프로젝트 용도로 폭넓게 사용) 등이 있다.

산업용 밸브의 가격은 규격(인치 단위 크기), 압력 사양(Class/JIS/PN 등급), 밸브 몸체 소재(주철, 탄소강, 스테인리스강), 용도 등 여러 핵심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제조사의 원산지(브랜드)에 따른 가격대는 품질, 인증 기준, 물류비용의 위계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 아래는 지역별 예상 가격대와 특징이다. (환율 약 USD 1 = IDR 17,716 기준)

<원산지별 밸브 브랜드 특징 및 가격대 비교>

(단위 : USD)

순번	구분	특징	주요 브랜드	소형 (1/2"-2")	중형 (3"-6")
1	미국 브랜드	매우 높은 품질 기준을 요구하며 일반적으로 ASME나 API 6D와 같은 엄격한 인증을 필수로 한다. 석유·가스, 석유화학, 발전소, 초고압 용도와 같은 중공업 분야에서 신뢰도가 높다.	Velan, Demco, Emerson, Kunkle, Cross	$141 - $451.56	$846.7 - $3,386
2	유럽 브랜드	높은 정밀도와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DIN, PN 등 유럽 표준을 준수한다. 자동화 시스템, HVAC, 식음료 산업, 정밀 제조 분야에 주로 적용된다.	Danfoss, Castel, Fivalco, KSB	$113 - $366.89	$677 - $2,540
3	한국 브랜드	인도네시아 내 많은 프로젝트에서 최적의 중간 대안(2티어)으로 자리잡고 있다.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품질과 내구성의 균형이 우수하면서도 서구 브랜드 대비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한다.	PK Valve, Samwoo, Komoto	$56 - $197.5	$338 - $1,411
4	중국 브랜드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가격대를 제공한다. 예산이 제한된 프로젝트, 일반 설비, 상업용 건물, 표준형 수처리 프로젝트 등에 매우 적합하다. 저가 이미지가 강하지만, 최근에는 주요 중국 제조사들도 API 인증을 갖춘 고사양 밸브 생산이 가능해졌다.	Neway, GBA, Gala, VTV, Evo	$14.5 - $85	$101 - $396

[자료: 수라바야 무역관 자체 조사]

<밸브 유형별(게이트·볼·버터플라이) 가격 비교>

(단위 : USD)

밸브 유형	중국 브랜드 (저가~중가)	한국/일본 브랜드 (중가~고가)*	미국/유럽 브랜드 (프리미엄)
게이트 밸브(주철/스틸)	$ 101 - $ 141	$ 282 - $ 508	$ 677 - $ 1400
볼 밸브(스테인리스 스틸)	$ 85 - $ 170	$ 225 - $ 423	$ 564 - $ 1128
버터플라이 밸브(웨이퍼형)	$ 28 - $ 50	$ 84 - $ 197	$ 250 - $ 564

*참고: 일본 브랜드(Kitz, Toyo 등)는 한국 브랜드와 함께 표준 벤치마크로 자주 활용되는데, 현지 시장에서 가격대와 품질 수준이 동등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자료: 수라바야 무역관 자체 조사]

주요 유통 채널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 내 밸브 제품의 유통 채널은 다음과 같다 :

수입 제도 및 관세

인도네시아 국가단일창구(INSW) 정보에 따르면 해당 품목에는 별도의 수입 제한 규정이 없다.

<인도네시아 내 밸브 유통 채널>

구분	유통 채널 구조
1	제조사 → 수입업자(단독 대리점/총판) → 유통업체 또는 공급업체 → 최종 사용자/프로젝트 발주처
2	제조사 또는 해외 무역회사 → 수입업자(유통업체 또는 공급업체) → 최종 사용자/프로젝트 발주처
3	제조사 또는 해외 무역회사 → 수입업자(최종 사용자 또는 프로젝트 발주처)

[자료: 수라바야 무역관 자체 조사]

시사점

< HS 코드 848180 관세>

항목	세율	비고
수입관세	5%	
부가가치세(VAT)	12%	
소득세	2.50%	API(수입업자 식별번호) 보유 시
소득세	7.50%	API(수입업자 식별번호) 미보유 시

[자료 : 인도네시아 재무부]

인도네시아 밸브 시장(HS 코드 848180)은 다운스트림 산업화와 에너지 인프라 확대에 힘입어 향후 10년간 연평균 6~8%의 견조한 성장이 전망되며, 특히 전동 컨트롤 밸브 분야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은 이미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온 한국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산 밸브는 품질과 내구성 면에서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서구 브랜드 대비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최적의 중간 대안(2티어)"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PK Valve, Automa, Komoto, DKC Valve, Samwoo, KSPC, KCL, Autosigma 등 다수의 브랜드가 이미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조선·해양 부문에서는 품질, 경쟁력 있는 가격, 안정적인 납기를 이유로 한국산 밸브가 선호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환율 변동과 경기 악화로 기존 유럽·미국산 밸브를 한국산으로 교체하려는 수요도 늘고 있어 시장 기회가 넓게 열려 있다.

다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첫째, 저가 시장은 이미 중국산이 장악하고 있으므로, 한국 기업은 가격 경쟁보다는 발전, 석유·가스, 광업, 석유화학 등 안전 요건이 엄격하고 고사양이 요구되는 고부가가치 부문에 집중하는 전략이 유리하다. 둘째, TKDN(국산부품사용률) 정책이 핵심성과지표로 자리잡으면서 국영기업 입찰은 이제 OECD 회원국산 제품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한국 기업에게는 오히려 중국·인도산과 차별화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표준 사양 제품의 경우 상당수가 싱가포르 소재 무역회사를 통해 신속하게 조달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지 재고 및 물류 거점 확보나 신뢰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십 구축이 납기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종합적으로, 특수 사양·고압·고신뢰성이 요구되는 밸브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춘 한국 기업이 현지 유통망 강화와 TKDN 요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병행한다면, 성장하는 인도네시아 밸브 시장에서 안정적인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 : UN Comtrade, 인도네시아 재무부,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자체 인터뷰 및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WELLINGTON COLLEGE
INDEPENDENT SCHOOL
JAKARTA

오픈 데이

2027-2028학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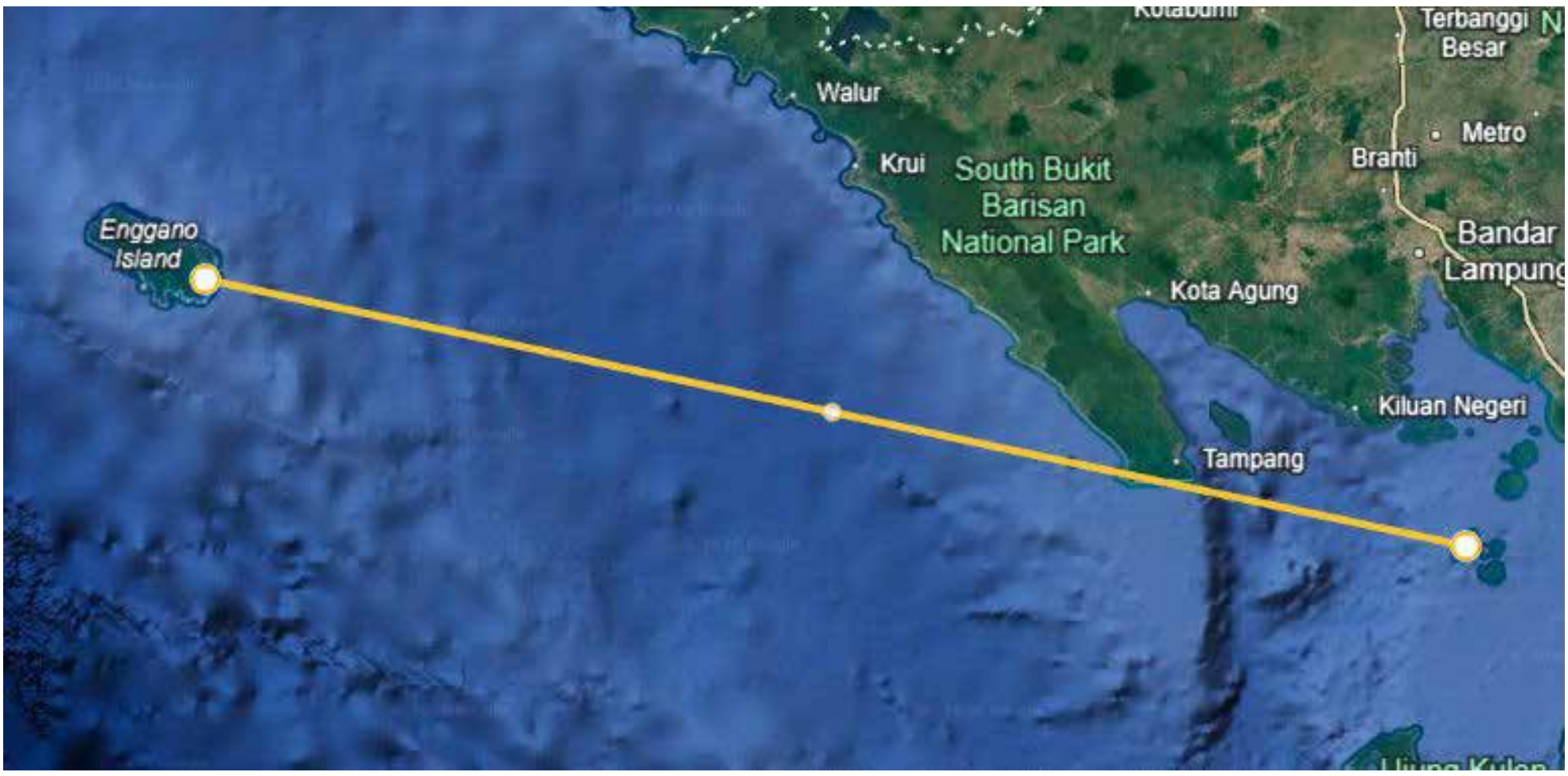
2026년 10월 17일
오전 9시- 오후 12시

입학생 모집
유아부~5학년



wellingtoncollege.sch.id

순다 해협서 실종된 취재선 선원 시신, 345km 떨어진 엔가노섬서 발견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 인근에서 벵쿨루주 북벵쿨루군 엔가노섬 해안 거리 측정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 인근에서 기자 5명을 태우고 항해하다 실종된 선박의 선원 시신이 사고 지점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섬에서 발견됐다.

인도네시아 반텐경찰청은 23일(현지시간)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벵쿨루주 북벵쿨루군 엔가노섬 해안에서 수습된 남성 변사체의 신원이 실종 선박 'KM 아루파다투 1호'의 선원 수라크만(또는 수카르만·60) 씨로 최종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헹키 반텐경찰청장은 "경찰청 의무국(Pusdokkes Polri) 재난희생자신원확인팀(DVI)이 시신의 사후 데이터와 유족의 생전(antemortem) DNA를 대조 분석한 결과, 해당 시신이 실종 선박의 선원이자 유족 야야트 씨의 친부인 수라크만 씨의 유전 정보와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수색 당국은 지난 12일 엔가노면 사왕 벵콕 해안에서 신원 미상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 이후 시신은 세스나 항공기 편으로 벵쿨루 경찰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반텐경찰청과 벵쿨루경찰청의 공조 하에 탑승자 8명의 가족 DNA 샘플과 대조하는 정밀 법의학 감식이 진행됐다.

시신이 발견된 엔가노섬은 수마트라섬 남서쪽 인도양에 위치한 외딴섬으로, 해당 선박의 마지막 신호가 포착된 람풍주 세베시섬 인근 해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345km 떨어진 곳이다. 조류와 파도에 의해 시신이 장거리 표류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고 선박인 'KM 아루파다투 1호'는 지난 7일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 주변을 취재하기 위해 출항했다가 순다 해협 해상에서 통신이 두절됐다. 선박에는 안타라 통신, 메르데카, iNews, 아나돌루 통신 소속 기자와 프리랜서 등 취재진 5명을 비롯해 선장과 가이드, 선원 수라크만 씨까지 총 8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인도네시아 합동수색구조팀(SAR)은 열흘간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추가 생존자나 선박의 잔해를 발견하지 못해 지난 17일 수색 작전을 공식 종료했다. 이에 실종자 가족들은 지난 18일 아낙 크라카타우 인근 해역을 찾아 헌화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린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드라 소니 반텐 주지사와 반텐 바사르나스(Basarnas) 관계자 등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으며, 당국은 이번 신원 확인을 계기로 관련 사고 경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PT. BIC JAYA INDONESIA

PT. BIC JAYA INDONESIA

작업환경측정(K3) / 근로자 건강검진(MCU) / 사내클리닉(In House Clinic)부문
인도네시아 정부(DEPNAKER) 대행기관

인도네시아 노동부 전략적 파트너 기관,
한국 기업들의 든든한 산업보건 환경 지킴이!


노동부 장관 BIC 방문 (2022.12)


노동부 차관 BIC 방문 (2023.12)


노동부 전략적 파트너 임명 (2024.5)


수하르토 대통령 BIC 주부산 인도네시아 명예영사관 지정 (1993~2007)

www.bicjayaindonesia.com

JAKARTA : Wisma Staco 6F, Jl. Raya Casablanca Kav. 18 +62 21 3049 0114 bicjaya.id@gmail.com
KOREA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57 부산 인도네시아센터(BIC) +82 51 365 0041 www.bic-korea.com

UTAMAKAN KESELAMATAN DAN KESEHATAN KERJA

BIC은

- 작업환경측정(K3)/산업보건 환경분야에서 인도네시아 최초 한국계 인도네시아 정부(노동부) 대행기관
-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근로자 10명 이상 고용업체 연 1회 작업장 환경측정/근로자 건강검진 법적 의무사항
- 한국에서 노동부 지정 산업보건기관 운영을 통해 풍부한 경험과 기술, 노하우 축적
- 작업환경 측정, 근로자 건강검진, 사내 클리닉 (In House Clinic)운영을 패키지로 일괄 수행
- 40여년간 한국에서 부산 인도네시아 명예영사,관광부,노동부,할랄청,대표부 역할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각별한 협력관계 유지, 우리 기업들의 대 인도네시아 정부 애로사항 해결지원

고객의 평가가
KPCM의 전문성을 증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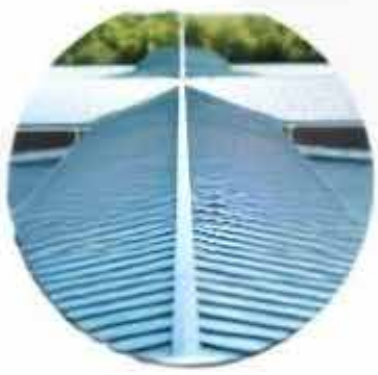
★★★★★



WALLING & ACP



INTERIOR



ROOFING



CONSTRUCTION



FLOORING



WAREHOUSE



EPOXY & CONCRETE POLISHING



PANEL



MECHANICAL & ELECTRICAL

산업단지 개발, 공장 건축, 인테리어

공장 유지. 보수 관리 전문

SAMSUNG CJ HYUNDAI LOTTE Mart
ZINUS LocknLock LG EMSONIC
PT. Strawland ZIMMOAH
PT. PUNGKOOK INDONESIA OME PT. SERIM INDONESIA

KPCM

+62 811-9966-903 (Mr Han)
kpcidhan@gmail.com
kpcm.co.id

프라보워 印尼 대통령, 국립대까지 '전면 무상 교육' 추진 가속화

유·초·중·고 공립학교 16만여 곳 및 국립대 학비 면제 단계적 검토
종교부 산하 '페산트렌총국' 신설해 이슬람 기숙학교 지원도 강화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초·중·고교 공립학교는 물론 국립대학교(PTN)까지 아우르는 무상 교육 정책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국가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 도입을 목표로 세부 실행 계획 및 재정 추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실에 따르면,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자카르타 메르데카궁에서 교육·재무·인적개발 분야 주요 장관들이 참석한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교육 복지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테디 인드라 위자야 내각사무처장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립학교 무상 교육은 유아교육 및 유치원(PAUD/TK)부터 초등학교(SD), 중학교(SMP), 고등학교 및 직업고등학교(SMA/SMK)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적용될 것"이라며 "현재 전국적으로 약 16만 4천 개에 달하는 공립 교육기관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정책에는 고등교육기관인 국립대학교 학비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향후 2주에서 4주 이내에 통합등록금(UKT)과 입학금 면제 등을 포함한 국립대 무상 교육 실행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운영 체계 정비와 단계별 로드맵 수립, 구체적인 소요 재원 산출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통 이슬람 기숙학교인 '페산트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026년 대통령령 제18호'를 제정해 종교부 산하에 페산트렌 관련 정책과 지원을 전담하는 '페산트렌총국'을 신설하기로 했다. 공교육뿐만 아니라 종교 사학 분야까지 포괄해 국가 교육 역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UI총학생회는 시위사태와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5.9.3 jpnn

테디 처장은 "이번 조치는 교육 접근성을 극대화하고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모든 교육 과정이 소외 없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발표가 전면 무상 교육의 즉각적인 시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책이 아직 입안 및 재정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2026년 국가 인턴십 2차 프로그램 본격 시행… 15만 명 청년 지원, 수당 '전액 비과세' 혜택

인도네시아 노동부(Kemnaker)가 주도하는 청년 일자리 역량 강화 사업인 '2026년 국가 인턴십 프로그램(MagangHub 2026)' 2차가 2026년 9월 21일부로 본격적인 공식 운영에 돌입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학 신규 졸업자를 대상으로 실제 노동 시장 진입 전 실무 경험과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다.

노동부 직업훈련생산성총국(Binalavotas)의 다르마완샤(Darmawansyah) 국장은 21일 공식 성명을 통해 "체계적인 인턴십 과정을 통해 청년 인재들이 실무 역량을 배양하고 노동 시장 진입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이 참가자 본인의 전공과 직무 역량에 부합하는 유의미한 경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르마완샤 국장은 참가자들에게 원활한 업무 적응을 위해 출근 전 연락처 확인, 행정 서류 완비, 직무 책임 숙지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2차 인턴십은 9월 3일 접수를 시작으로 운영 협력기관의 선발·추천 및 노동부의 최종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총 15만 명의 인턴십 인원 선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차(5만 명)와 이번 9월 2차(5만 명)에 이어 오는 10월 잔여 5만 명에 대한 최종 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역량 강화 사업인 '2026년 국가 인턴십 프로그램(MagangHub 2026)

정부는 핵심 우선순위 사업인 이번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약 4조 2천억 루피아 규모의 국가예산(APBN)을 편성했다. 선발된 인턴들은 최대 6개월 동안 근무 지역의 시·군 최저임금(UMK)을 기준으로 산정된 수당을 실근무 일수에 따라 정산받게 된다. 일례로 수라바야시에서 월 기준 근무 일수(22일)를 모두 채울 경우, 해당 지역 최저임금 기준인 월 528만 8,796루피아가 전액 지급되며 결근 시에는 일할 계산되어 지급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2026년 재무부 장관령 제6호에 따라, 국가예산으로 지급되는 참가자들의 인턴십 수당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PPh 제21조)를 정부가 전액 대납(DTP)한다. 이에 따라 인턴십 참가자들은 2026년 12월까지 실질적인 '비과세' 혜택을 누리며 수당 전액을 온전히 수령하게 된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환자분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한의원"

미르 한의원
MI-REU CLINIC
신속한 효과 • 세심한 진료

■ 진료과목
– 목,허리통증및 디스크
– 어깨,무릎,팔,다리 관절및 근육통
– 소화기,호흡기,심혈관 질환
– 성장탕,총명탕(수험생)
– 허약체질,피로회복,면역강화
– 갱년기,자궁근종,갑상선,일체냉증
– 화병,우울증,공황장애

진료시간
월–금 9:30~6시
토요일 10:30~4시
점심 : 12시~1시
일요일,공휴일 휴무

085694537974
INDO-TCM
미르한의원
(Mireu-tcm)
TALK
Mireu-tcm

Grand Wijaya Centre Blok C 37 Lantai 1
Jl. Wijaya II, Kel. Pulo, Kec.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인니 관광부, 항공권 가격 상승에 번들링 상품으로 대응

"국내 관광 접근성 지키기" 부처 간 공조 나서

국내선 항공권 가격 상승에 대한 대중의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관광부(Kemenpar)가 관광객 이동 추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국가 관광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다각적 전략 마련에 나섰다. 특히 항공권과 관광 상품을 연계한 결합(번들링) 패키지 개발이 핵심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니 루 푸스파(Ni Luh Puspa) 관광부 차관은 일요일(2026년 9월 20일) 남술라웨시 마카사르 관광대학(Poltekpar Makassar) 실무 방문 중 이같이 밝히며, 항공권 가격 문제가 인도네시아 내 다양한 관광지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항공권 가격 문제는 국민의 관광지 접근성과 직결되므로 정부의 주요 관심사"라며 "이에 따라 관광부는 일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니 루 차관은 항공 운임 문제가 관광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항공권 가격 책정에는 교통부를 비롯해 관련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항공권 가격 책정은 교통부의 권한이자 대통령의 관심사이기도 하므로, 교통부와의 조율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항공권·숙박·관광상품 묶은 '번들링' 확대

정부 차원의 대응과 별개로 관광부는 업계 종사자들이 보다 경쟁력 있는 여행 상품을 선보이도록 독려하고 있다. 그 핵심이 특정 목적지의 항공권, 숙박시설, 관광 상품을 하나로 묶는 번들링 개념이다.

니 루 차관은 "산업 측면에서는 개별 상품으로 판매되기보다 번들링 상품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보다 경쟁력 있는 패키지 구축 방안을 업계 관계자들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중에게 보다 저렴한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협회 및 업계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이 국내 관광지를 지속적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Bandara Internasional Soekarno-Hatta di Tangerang, Banten. (Foto: Istimewa)

세제 혜택에도 유류할증료 인상은 부담 요인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6년 국내선 일반석 항공편에 대한 세제 혜택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재무부 장관령 제24호에 따라 기본 운임과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국내 정기 상업 항공 운송 일반석 서비스의 부가가치세(PPN)를 정부가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항공 비용에 대한 압박은 여전히 우려로 남아 있다. 2026년 9월 교통부는 국내선 일반석 유류할증료 상한선을 전월 30%에서 최고 상한 운임(TBA)의 40%로 인상했다. 이는 국제 항공유 가격 급등에 따른 조치로, 항공권 가격에 평균 약 8%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산된다.

외국인 관광객 898만 명 돌파…5.23% 증가

한편 니 루 차관은 외국인과 내국인 관광객 방문 수가 여전히 긍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2026년 7월까지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898만 명을 돌파해 전년 동기 대비 5.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긍정적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관광부는 국내 여행객의 이동을 꾸준히 촉진하고 관광 마을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한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지역 주민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로컬 관광지 홍보도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다각적 전략을 통해 정부는 교통비 부담과 글로벌 경제 변동성 속에서도 관광 여행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국가 관광 부문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인도네시아 산불·산림화재에 총력 대응… 항공기 64대·인력 5만 4천여 명 전격 투입

- 수마트라 · 칼리만탄 등 주요 위험 지역 중심 입체적 진화 작전 전개
- 위성 관측 핫스팟 하루 만에 777개 급증… 이탄지 지형 등 진화 난항 속 총력전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건기 산불 및 산림화재(karhutla)가 급격히 확산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마를 진압하기 위해 육·공군 전력과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는 매머드급 대응에 나섰다.

테디 인드라 위자야 인도네시아 국무장관(세스크□□)은 정부가 전국 각지에서 번지고 있는 불길을 잡기 위해 총 64대의 항공기와 5만 4,394명에 달하는 합동 진화 인력을 현장에 전격 배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급증하는 발화 지점을 조기에 억제하고, 유독성 연무(Haze)로 인한 대기 오염을 방지하여 자국민의 건강과 일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긴급 대응책이다.

테디 장관은 내각 사무처 공식 채널을 통해 "지난 8월부터 총 64대의 항공기가 공중 물 살포(워터 보밍) 작전에 투입돼 활동 중이며, 5만 4,394명의 합동 진화 인력이 지상 현장에서 상시 기동하며 화재 지점을 수색하고 연소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고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이번 대규모 진화 작전에는 인도네시아군(TNI)과 경찰(Polri)을 필두로 환경산림부(Kemenhut), 국가재난관리청(BNPB), 지방재난관리청(BPBD), 산불 전문 진화대인 '망갈라 아그니(Manggala Agni)'는 물론, 민간 자원봉사자와 지역 주민들까지 대거 참여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헬리콥터가 여러 지역의 산불 및 산림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워터밤빙을 실시하고 있다. (Foto: Dok. Instagram Sekretariat Kabinet)

지역별 지상 인력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화재 위험도가 높고 피해가 우려되는 수마트라섬과 칼리만탄섬 일대에 집중됐다. 구체적으로는 ▲서칼리만탄 1만 4,759명 ▲리아우 및 리아우 제도 1만 4,382명 ▲남수마트라 1만 1,026명 ▲잠비 5,984명 ▲중부칼리만탄 4,686명 ▲남칼리만탄 3,557명 순으로 투입돼 지상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다.

공중 진화 작전 역시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국가재난관리청 소속 헬리콥터 및 항공기 55대와 인도네시아군 소속 항공 전력 9대 등 총 64대의 항공기가 투입됐다. 이들 항공 전력은 울창한 밀림과 광활한 면적 탓에 지상 진화 대원의 도보 접근이 불가능한 험지 및 고립 지대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물 살포 작전을 감행하고 있다.

테디 장관은 "하늘과 지상에서 모든 진화 전력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입체적인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며, "이러한 모든 노력은 조속히 불길을 잡고 연무 피해를 줄임으로써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최종 목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광활한 산림 면적과 함께 지하 깊은 곳까지 유기물이 쌓여 불길이 쉽게 꺼지지 않는 '이탄지(Peatland)' 지형의 특성은 여전히 진화 작업의 최대 난관으로 꼽힌다. 이탄지는 표면의 불길을 잡아도 지하에 불씨가 남아 있다가 건조한 바람을 타고 다시 발화하는 특성이 있어 완전 진화까지 상당한 시일과 자원이 소모된다. 테디 장관은 "광대한 영토와 접근이 극히 까다로운 이탄지의 조건이 대응 과정에서 중대한 도전 과제로 작용하고 있으나, 정부는 공중과 지상 작전을 병행하며 쉼 없이 진화에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후 건조화와 맞물려 현장의 화재 위험 지표는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부 산하 산림화재 모니터링 시스템 '시퐁기(SiPongi)'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테라/아쿠아, SNPP, NOAA-20 등 다중 정지궤도·극궤도 위성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9일 23시 59분 기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감지된 고신뢰도(high confidence) '핫스팟(산불 추정 열원)'은 총 1,323개에 달했다.

이는 직전일인 18일 집계된 546개와 비교해 단 하루 만에 무려 777개(약 142%)가 급증한 수치다. 위성 관측 열원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인도네시아 재난 당국은 향후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인접국가로의 연무 확산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해 추가적인 진화 장비와 인력 투입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 살기좋은 정주여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유턴하세요.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가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역할

기업 맞춤형 투자 상담	인센티브 정보 제공
조세 정보 제공	부지선정 정보 제공
행정적 지원 제공	사업파트너 발굴 지원

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정보부터 행정지원까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하겠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BJFEZ
Busan-Jinhae Free Economic Zone
대표번호 : 051) 979-5000

동자바 스메루산 또 분화…당국, 반경 13km 내 주민 활동 전면 금지 권고



인도네시아 동자바주에 위치한 스메루산 Penampakan Aktivitas Gunung Semeru (Foto: Dok. Istimewa)

인도네시아 동자바주에 위치한 스메루산이 21일(현지시간) 오전 재차 분화함에 따라 현지 당국이 인근 주민들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고 나섰다.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산하 지질청은 이날 오전 스메루산의 분화가 감지됨에 따라, 분화 중심부로부터 반경 13km 이내의 남동부 구역에서 주민 활동을 전면 금지할 것을 공식 권고했다.

라나 사리아 지질청장은 현지 안타라(Antara) 통신을 통한 서면 발표에서 "인도네시아 서부 표준시(WIB) 기준 오전 10시경 스메루산의 분화가 감지됐다"며 "이번 분화는 지진계 기준 최대 진폭 22mm, 지속 시간 약 1분 34초로 기록되었으며, 짙은 회색 화산재 기둥이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현재 스메루산의 화산 활동 경보 단계는 4단계 중 두 번째로 높은 3단계(경계·Siaga)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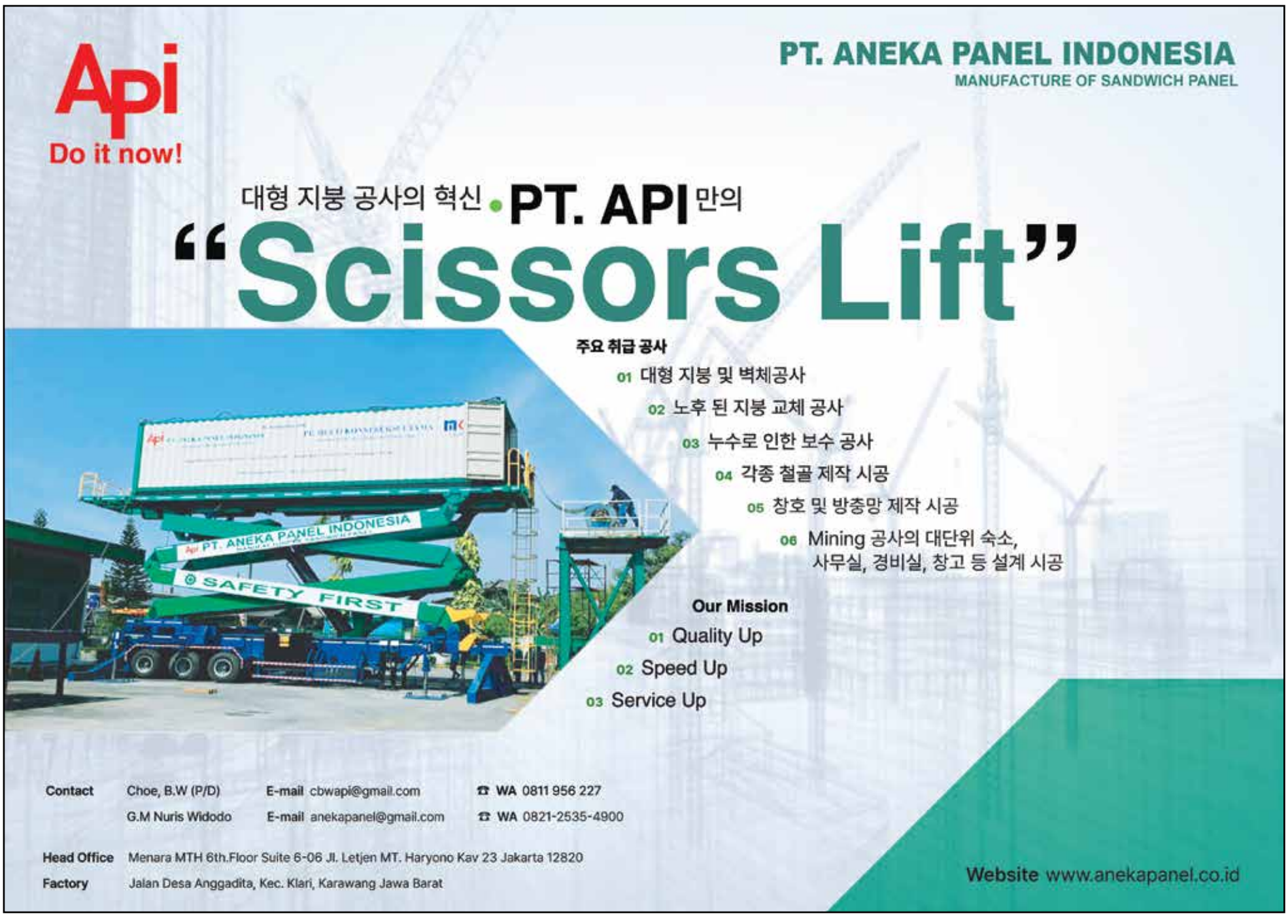
지질청은 화산 분화구 정상에서 최대 17km 지점까지 화쇄류 및 화산진흙류(라하르)가 확산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에게 절대 금지 구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분화 중심부로부터 최대 13km 떨어진 브숙 코보칸(Besuk Kobokan) 수로 인근 남동부 구역 내 모든 활동을 중단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해당 13km 반경 밖이라 할지라도 브숙 코보칸 수로를 따라 강변 및 하천 부지로부터 500m 이내 구역 역시 접근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백열암(달아오른 암석) 투석 위험이 큰 분화구 반경 5km 이내 구역은 주민과 관광객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제한 구역으로 지정됐다. 당국은 브숙 코보칸을 비롯해 브숙 방(Besuk Bang), 브숙 큼바르(Besuk Kembar), 브숙 삿(Besuk Sat) 등 정상부에서 발원하는 주요 하천과 계곡 주변 주민들에게 화쇄류 및 용암 붕괴, 강우에 따른 화산이류 발생 위험에 대해 지속적인 경계를 유지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라나 청장은 "스메루산의 화산 활동 추이 및 실시간 기술적 권고사항은 지질청 공식 웹사이트(magma.esdm.go.id)를 통해 상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System Ever Indonesia | 영림원소프트랩

더 튼튼한 기반,
더욱 크게 성장한
비즈니스

- 회계 (Accounting)
- 생산 (Manufacturing)
- 재고 (Inventory)
- 급여 (Payroll)
- 보세구역 (Bonded Zone) 지원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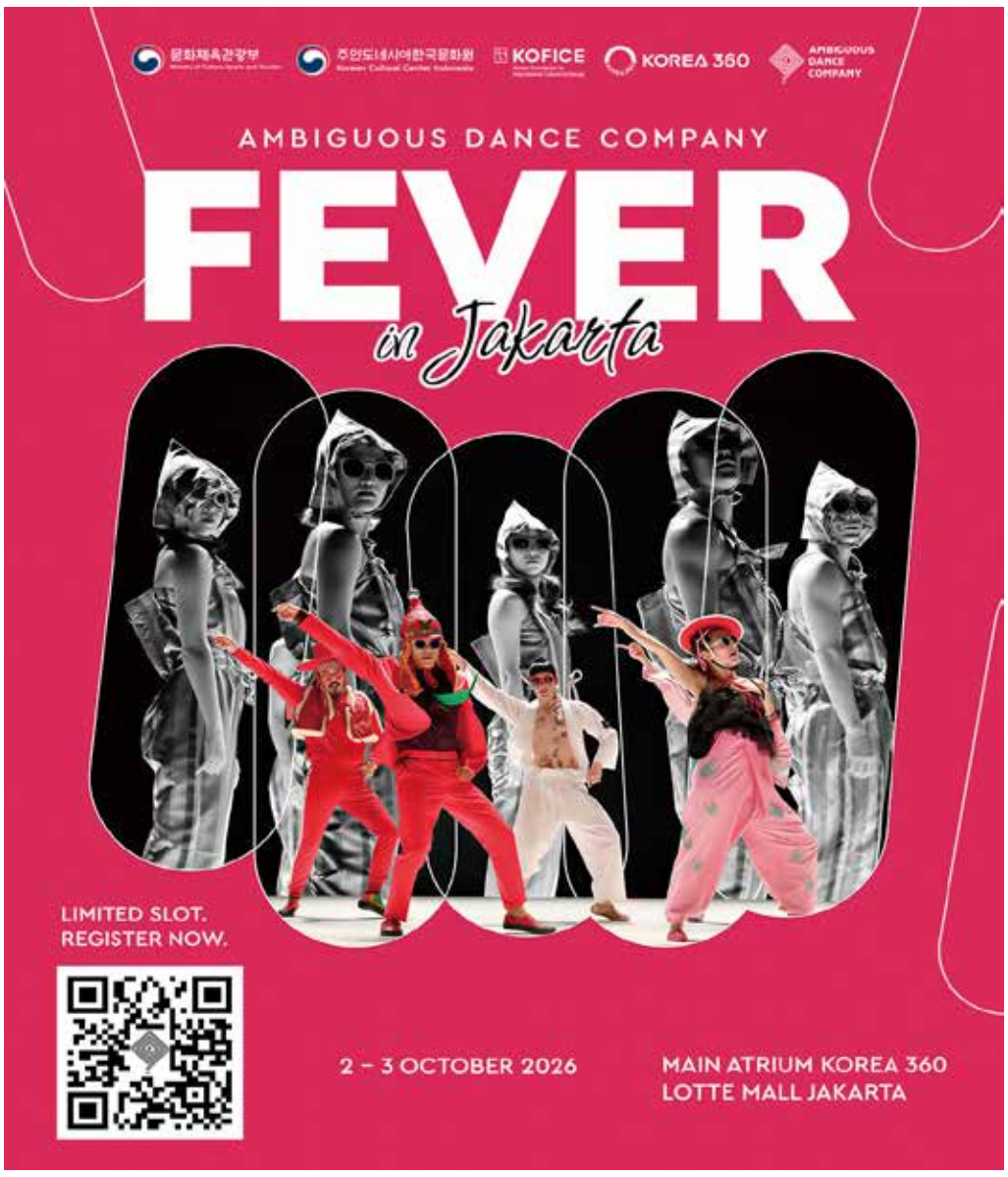
비즈니스 규모에 따른 **맞춤형**
시스템 구축을 제공합니다.

지금 상담하세요! →

+62 811-1997-1017
www.systemever.co.id

한국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무대, 엠비규어스 댄스컴퍼니 <FEVER> 인도네시아 공연

- 싱가포르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를 잇는 순회공연 - KOREA 360서 전통놀이 및 K-뷰티도 함께 즐긴다



메인포스터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국문화예술 공연,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의 〈FEVER〉가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잇는 순회공연에 나선다. 특히 국내외에서 〈범 내려온다〉로 이름을 알린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가 인도네시아 관객들을 만나 한국 전통음악의 리듬과 현대무용의 움직임을 결합한 역동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현지에서도 관심이 기대된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원장 이상전)은 9월 30일(수)부터 10월 3일(토)까지 4일간 자카르타 KOREA 360에서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의 공연과 함께 한국문화를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한국문화 종합행사를 개최한다.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의 〈FEVER〉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이 추진하는 한국 문화예술 해외 순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는 한국 전통음악의 리듬과 현대무용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전통예술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FEVER〉를 통해 한국 공연예술의 새로운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공연은 10월 2일(금)과 10월 3일(토), 자카르타 KOREA 360 메인 아트리움에서 총 2회 개최된다.

- 10월 2일(금) 18:30~19:30
- 10월 3일(토) 15:30~16:30

특히 이번 공연은 한국 전통음악의 리듬과 현대무용의 움직임이 어우러지는 독창적인 퍼포먼스를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로,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 특유의 개성적인 움직임과 역동적인 무대를 통해 한국 전통문화가 현대 공연예술로 재해석되는 과정을 선보인다.

9월 30일(수)부터 10월 3일(토)까지 KOREA 360에서는 공연과 함께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한국 전통놀이문화 체험부스에서는 연 만들기, 딱지 만들기, 제기차기 등 한국의 전통놀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K-뷰티 체험부스에서는 피부 측정과 스킨케어 체험 등을 통해 한국의 뷰티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관객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의 전통놀이와 K-뷰티를 직접 체험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무용 공연까지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 단순한 공연 관람을 넘어 한국의 전통문화부터 현대 공연예술, K-뷰티에 이르기까지 한국문화의 다양한 모습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종합문화행사로 마련될 예정이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 관객들에게 한국문화의 폭넓은 매력을 소개하고, 공연예술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문화교류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오케이 치과 병원

ROYCE
ROYCE DENTAL GROUP

OK Dental Clinic



로이스치과
공식 모델 정준호

1 한국-인도네시아 협진 시스템
Korea-Indonesia Collaboration System

2 임플란트-최소절개시술
Implant - Minimally Invasive Procedure



3 찌까랑 지점 오픈

OK치과가 특별한 이유

- ROYCE 본원 협진 시스템
-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 개인 맞춤 치료 플랜
- 사후관리 및 한국 연계 진료 지원

Monday - Friday = 10:00AM - 19:00PM
Saturday = 09:00AM - 17:00PM

OK Dental Clinic

자카르타 주소 (Jakarta)
Blok C, Jl. Wijaya II No.38, Rt.6/Rw.1
Pulo, South Jakarta 12160

찌까랑 주소 (Cikarang)
K-Eduplex Jl. Ganesha 2, Lot B1,
Deltamas, Pasirranji, Cikarang Pusat, Bekasi

문의 : Tel : 021-720-1779 HP : 0821-2255-7980 Email : okdental02@gmail.com

인도네시아 철도공사, 특급호텔급 고급 침대열차 '누산타라 익스플로러' 공개

- 창립 81주년 기념 프리미엄 관광열차… 1단계 개발 공정 완료 및 시범 운행

- 전통문화 접목한 인테리어와 전용 라운지 구축… 편성 대절 등 요금 체계 검토 중

인도네시아 철도공사(PT Kereta Api Indonesia, 이하 KAI)가 특급호텔 수준의 편의시설을 갖춘 럭셔리 슬리퍼 트레인(침대열차) 콘셉트의 프리미엄 관광열차 '누산타라 익스플로러(Nusantara Explorer)'를 선보인다. 본 열차는 오는 2026년 9월 28일 맞이하는 KAI 창립 8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됐다.

누산타라 익스플로러 편성은 본격적인 상업 관광 운행에 앞서 사전 준비 단계의 일환으로 현재 반둥~자카르타 구간에서 시범 운행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9월 1일부터 4일까지 철도인프라총국의 차량 안전성 및 운행 준비 검증을 위한 1차 시험 운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차량 설비 구축을 위한 1단계 개발 공정은 현재 100% 완료된 상태다.

이번 열차는 수라바야 구벵 철도정비창(Balai Yasa Surabaya Gubeng)에서 KAI 자체 전문 인력을 통해 개발됐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구상에 따라 철도 이동망과 천혜의 자연경관, 전통문화 유산을 결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내 인테리어는 따뜻한 질감의 소재와 은은한 조명을 기반으로 전통 그림자 인형극 '와양 쿨릿', 바틱 라셈(Batik Lasem), 발리 전통 문양 등을 적극 반영해 고유의 정체성을 시각화했다.

바비 라시딘 KAI 사장은 21일 공식 성명을 통해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이동 과정 자체가 여행의 핵심 경험이 되도록 설계했다"며, 승객들이 열차 내에서 휴식과 다이닝을 즐기며 차별화된 여정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열차 편성은 시그니처 클래스, 어드밴스 클래스, 컴팩트 클래스의 침실 객실과 함께 라운지, 고급 식음료를 제공하는 '그랜드 레스토랑', 키친 및 승무원 구역으로 구성된다. 1개 편성당 최대 수용 인원은 91명이다. 이 중 36명은 전용 침실 객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55명은 파노라마 창과 바(Bar), 피아노, 오디오 시스템을 갖춘 라운지 및 레스토랑 구역을 이용하도록 설계됐다.

현재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운행 노선과 일정, 최종 운임 체계는 아직 공식 확정되지 않았다. 관광열차 특성상 운행 경로와 여행 기간, 제공되는 패키지 서비스에 따라 요금이 탄력적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KAI 측은 정기 노선 승차권 개별 판매 외에도 열차 1편성을 통째로 빌리는 전세(차터) 운용 방식을 검토 중이다. 바비 사장은 1편성 대절 비용이 1억 루피아(한화 기준)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조율될 것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나, 세부 운임 패키지는 여전히 산정 단계에 있다.

업계에서는 기존 파노라믹 열차(KA Panoramic) 편도 대절 요금이 약 3,800만~6,000만 루피아 선이고, 수위트 클래스 컴파트먼트(KA Suite Class Compartment) 1량 전체 이용 시 2,960만~7,400만 루피아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최고급 시설을 갖춘 누산타라 익스플로러 역시 상당한 프리미엄 운임이 형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인도네시아 철도공사(KAI)가 특급호텔 수준의 편의시설을 갖춘 관광열차 '누산타라 익스플로러(Nusantara Explorer)'를 선보인다. (Dok. PT Kereta Api Indonesia (KAI)



CGV | 2026년 9월 22일 ~ 28일

영화 그 이상의 감동

이번 주 상영!

9월 23일



굿즈



*액션
*지구 인구의 절반이 사라진 후, 살아남은 어벤저스 멤버들이 우주의 질서를 되찾기 위해 다시 한번 모인다.
*4DX와 SCREENX 포맷 관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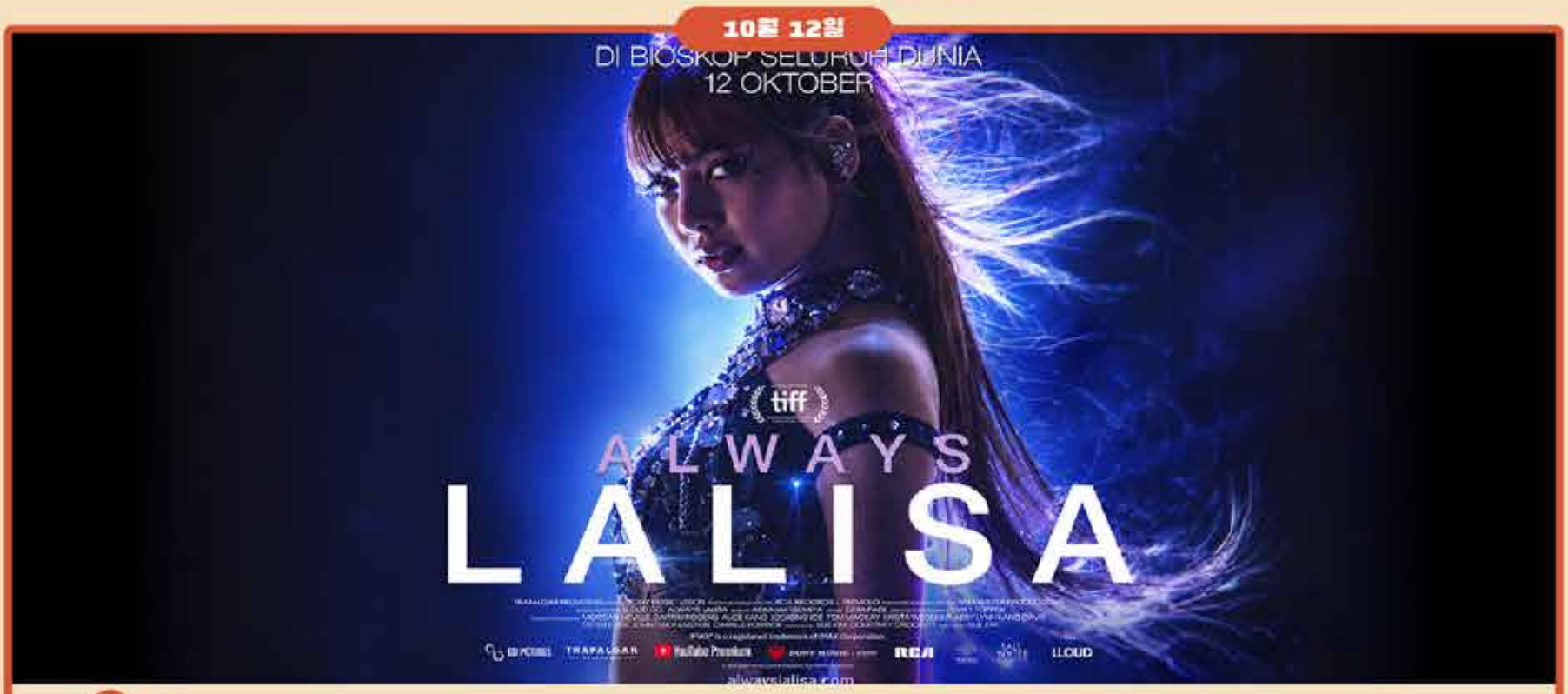
"Infinity Combo" 구매 시 "Avengers Endgame: Encore" 블랙티켓 티켓을 증정합니다! CGV 웹에서 구매 가능 지점을 확인하세요!





커밍 쑨 in CGV

10월 12일



*음악
*블랙핑크의 활동이 잠시 중단된 후, LISA가 첫 솔로 활동을 시작한다. LISA가 데뷔 솔로 앨범 'Alter Ego'를 작사하고 녹음하며 발매하는 여정을 담았다.

CGV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지금 예매하세요!